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19 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6월 1일

【1】



金在淳회장이 새로 제작된 재미동창회기를 들어 보여고 있다

재미총동창회 평의원들 한자리에...



우리 총동창회 96년도 새 진용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해외동문들의 동창회 參與熱에 불이 당겨졌다는 사실이다. 이 불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LA에서 재미총동창회 평의원회의가 열려 정관을 개정하는가 하면 그밖에 다른 지부에서도 잇달아 모임을 갖고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해외지부는

북미지역의 16개소를 비롯해 남아메리카, 유럽, 동남아, 호주 등 44개 지부에 이른다. 현재 등록된 회원수만 해도 약 1만2천명이며, 북미지역에서만 동창회보

꿈엔들 잊힐리야!

구독이 8천부를 넘어섰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멀고 낯선 땅에서 언제나 고국을 그리고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를대는 실개천

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배기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중략)

시인 鄭芝溶의 「향수」처럼, 우리 해외동문들은 애절한 情感으로 모교를 사랑하고 고국의 동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곳에 오래 살고 있든, 일시 머물고 있든 고향생각은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가슴 시리도록 고맙고 귀중한 마음씨인가! 이것은 22만 전 서울대 동문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씨앗이 될 것이다. (根)

미주 평의원회의, 개교 50주년 모교 방문단 구성키로

“21세기 아·태시대 주역 책임 커”—金在淳회장 기조연설



앞줄 좌로부터 金性熙재미동창회 사무총장, 朴鍾秀유타지부 회장, 閔丙峻본회 부회장, 金在淳본회 회장, 李丙俊재미동창회장, 吳仁錫재미동창회 수석부회장, 權承霖미네소타지부 고문, 뒷줄 좌로부터 成周慶재미동창회 재무국장, 趙建植본회 이사, 李世震본회 사무총장, 權赫昌LA지부 평의원, 金吉中재미동창회 전임사무총장, 李漢植시카고지부 회장, 李名相LA지부 수석부회장, 朴炳超LA지부 회장, 吳泰煥워싱턴DC지부 회장, 崔洙容뉴욕지부 평의원, 卓懿琿재미동창회 감사, 李龍洛시카고지부 평의원, 權相禧재미동창회 회보편집인.

재미총동창회(회장 李丙俊)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LA근교 Industry Hills Sheraton Resort & Conference Center에서 제5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 閔丙峻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미주 각지역 동창회장과 평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조국이 발전하려면 서울대인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장래의 바람직한 모양새를 그리는데 재미동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기조연설문 요지 5면)

사업보고와 재무보고에 이어진 안건토의에서 동창회의 재

정 확보를 위해 각지역 회원수에 비례한 후원이사를 두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한편 감사선출을 통해 李載德(동부지역), 卓懿琿(서부지역)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을 동창회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宋舜英)에 위촉.

이날 오후에 열린 평의원회의 환영만찬에 참석한 동문들은 동창회보 발간, 동창회 법인체 등록, 동문 Directory발간, 개교 50주년 기념방문단 구성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또한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공헌한 姜洙祥 전임 회장과 金吉中 전임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金在淳회장이 李丙俊회장에게 재미총동창회기를 전달,

인증식을 가졌다.

만찬중에 거행된 골프 시상식에서 챔피언에 吳仁錫재미동창회 수석부회장, 1등에 본회 金在淳회장, 2등에 吳炯遠남가주동창회 고문, 3등에 본회 閔丙峻부회장이 수상했으며 메달리스트에 李基俊남가주동창회 고문, 근접상에 崔慶善샌프란시스코동창회 회장, 장타상에 정은조 남가주동창회 전임총무가 각각 차지했다.

崔煥曄(82년 經營大卒)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여흥에서는 각지역별로 노래자랑이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제6차 평의원회의는 97년 5월 마지막 월요일 뉴욕에서 개최기로 했다. (雙)

미술작품

鄭 槿 華 作



「田園」, 50X 69cm

〈작가 약력〉

△1957년 서울대 약대졸
△1984년 이화여대 경영연구
구원 동양화과정 수료
△1983~95년 제15회 인천
광역시 미술협회전
△1984~93년 한·중 미술교

류전
△1985~95년 한국미술협
회 회원전
△1995년 국제미술교류전
초대전
△1996년 제1회 개인전

부회장에 金貞植동문 추가 선임



본회 金在淳회장은 최근 부회장으로 金貞植(56년 工大卒) 대덕전자 대표이사(사진)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고문, 명예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포함한 동창회 임원진은 60명으로 확정됐다.

재미평의원회의 기조연설문

〈요지〉

존경하는 李丙俊회장! 그리고 미주 전역에서 참집하신 동문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미주에 사시면서 평소에 서울대인이라는 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가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가 없지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은 서울대인으로서 비방과 칭찬을 면할 수가 없지요.

제가 2년 전 총동창회장에 선임되면서부터 내건 슬로건은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국 발전의 궁극적인 책임이 서울대인에게 있음을 동문 여러분과 더불어 진정으로 느끼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날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 Dynamic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경제기적」은 구미 제민족이 2백년을 필요로 했던 과정을 아시아 사람들은 불과 30년 안팎의 단시일에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나라로서의 모양새-즉 국격이 있을 법합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나라가 발전한 예는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볼 때, 더 크게 더 깊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조국을 먼 곳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은 우리나라 장래의 바람직한 모양새를 그려낼 수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힘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데지요.

국민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가야 함은 물론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이 능력있는 존재로서 세계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존재로서 주목받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나라로서의 격을 높이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인 사회는 너무도 네가티브한 싸움을 해왔다고 자성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데 힘을 합해 나갑시다.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또 조국의 통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 동문들이 크게 뭉쳐 힘을 합해 매력있는 나라, 타민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격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합심해 나갑시다.

1996년 4월 2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뉴욕지부

鄭宗澤상임부회장 환영만찬 개최

뉴욕支部同窓會(회장 權泰典)는 지난 5월 3일 뉴저지 「대원각」에서 UN지속개발위원회(CSD) 제4차 고위급회의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환경부장관)을 초청, 환영만찬을 가졌다.

朴魯洙뉴욕총영사를 비롯해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임은 李文輝고문의 동문소개, 權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음대출신 동문의 가곡 독창으로 동문간의 친화와 환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모임에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행운의 열쇠와 삼각기를 전달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동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權泰典회장과 陳奉日전임회장이 본회 사무처를 방문, 李世霞사무총장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權회장은 총동

창회장배 동문친선 춘계골프대회를 6월 2일 개최한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총동창회와 지부 동창회의 유대 강화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變)

인천 치대동창회

치의학 슬라이드 상영



在仁川 치대동창회원들이 총회후 기념촬영을 했다.

인천支部 齒科大學同窓會(회장 禹光均)는 지난 16일 인천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및 내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창회 활동보고와 이사회 모임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회원들은 경조

사조례, 조기제작, 연 3회의 정기모임, 동창회원패 제작 등을 논의했다.

본회에서는 同會에 지난 3월에 열린 정기총회 녹화테이프와 기념시계를 증정했으며 金讚淑치대동창회장이 동창회로고가 새겨진 넥타이핀을 참석

한 동문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閔丙一동문은 이날 40여년간의 진료경험과 연구성과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한 현대 한국 치과의학회 발전과 정과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기록 등의 생생한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熙)

울산지부

6월 16일 정총 열기로

울산支部同窓會(회장 金石基)는 지난 2일 울산 코리아나 호텔에서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18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96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6월 16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 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문의전화: 0522-78-2160)

공대동창회

신임회장에 鄭哲圭동문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 19일 모교 공대 교수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金文漢교수를 비롯한 정년 퇴임교수 6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동창회 회무보고, 95년도 결산보고, 96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주요안건이었던 임원개선에서는 신임회



장에 鄭哲圭(52년卒·태성고무 화학사장)(사진)동문이 선출됐다.

법대동창회

신임 李奭熙회장 선출



李奭熙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法科大學同窓會(회장 琴震鎬)는 지난 14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겸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鄭石謨, 辛基南, 徐廷和의원을 비롯한 법대 출신 국회의원들과 鄭宗澤환경부장관, 安又萬법무부장관, 李洪九 신한국당대표, 金道昶변호사, 尹世榮서울방송회장, 孫一根백상기념관장, 孫京植제일제당회장, 尹永錫대우그룹총괄회장 등 政·財·官界 동문들이 대거 참석했다.

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

창회를 위해서 좀더 봉사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돼 아쉽다』고 말하고 『퇴임후에도 미력이나마 동창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이날 95년도 결산과 9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신임회장에 李奭熙(대우JAPAN회장)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제4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된 郭潤直 모교 명예교수와 李會昌 前국무총리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교회와 회갑을 맞은 5회, 13회 동기들에게 축수패를 각각 전

달했다. 또한 동창회 유공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제15대 국회의원 당선동문에게는 축하패를 각각 전달했다.

가정대동창회

「스승의 날」행사 펼쳐

家政大學同窓會(木蓮會 회장 李仁子)는 지난 11일 서초동 소재 「삼정」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牟壽美 모교 명예교수, 安承堯회장, 林元子교수를 비롯해 同會 회장단과 각 기별 이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同會는 이날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상대동창회

총선당선자 축하연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22일 상의클럽에서 총선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黃珞周, 金元吉, 朴鍾根, 鄭夢準, 李壽仁당선자, 李錫采장관, 朴在潤장관, 趙淳서울시장, 具本英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同會 李昌玉, 李揆行부회장 등 1백20여명이 참석했다.

수의대동창회

李佑宰동문 축하모임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金範來)는 지난 22일 모교 수의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총선당선자 축하모임을 가졌다.

李佑宰동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崔熙仁학장을 비롯해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同會는 이날 李동문에게 행운의 열쇠와 기념품을 증정하고 개교 50주년 기념기와 배지를 전달했다.

농대동창회

전임회장 등에 공로패 전해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朴辰煥)는 지난 11일 모교 농과대학 「사색의 동산」에서 1백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스승의 날 행사를 겸해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은사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한편 沈鍾燮전임회장과 柳寬熙전

임총무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鄭一永, 咸鍾漢동문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편 61학년 동문들은 東會에 586컴퓨터 1대와 프린터를 기증하고 모교에 액자를 증정했다.

치대동창회

李春根동문 등 감사패 받아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지난 23일 모교 1층 강의실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모교발전 기금 마련을 위해 힘써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특별히 총회일정에 맞춰 모교를 방문

한 일본인 동문들에게 환영인사를 했다.

同會는 이날 일본인 伊東武嗣동문을 비롯한 5명에게 기념메달을 전달하고 李春根전임회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 5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치대 일본지부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齒科大學 일본支部同窓會(회장 手嶋東) 모교방문 기념모임이 지난 24일 세종호텔 장미홀에서 개최됐다.

同會는 매년 한차례씩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 모교방문을 겸해 치러졌다.

이어 鄭宗澤상임부회장과 치대동창회 李春根명예회장이 각각 기념품을 전달하고 북한방문슬라이드 자료를 감상했다.

(志)

상대20회

발전기금 1천만원 출연



홈커밍축제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상대20동기회(회장 石豊藏)는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 축제」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지난 11일 부부동반 모임으로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만남의 시간」, 기념식, 「우정의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만남의 시간에는 각 테일을 마시며 회원들끼리 그 간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목을

돈독히 했다.

경과보고에 이어 은사소개 순서에서는 羅雄培부총리를 비롯한 10여분의 은사를 모시고 사제간의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회원들은 이날 모교에 기금 1천만원을 출연하고 후배 양성과 모교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학과

신임 李商淳회장 선임

건축학과동창회(회장 鄭日榮)는 최근 모교 교수회관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신임회장에 李商淳(56년卒·롯데건설대표)(사진)을



문을, 총무이사에 金光鉉(모교 교수)동문을 각각 선출하고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공학과

신임 감사 뽑아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金運昌)는 지난 5일 모교 에너지자원기술연구소에서 총회를 갖고 오후에는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동문 및 가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동반야유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9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임원단 회의에서 선임되었던 金運昌회장의 인준과 함께 감사에 李知憲(대한광업진흥공사

개발사업본부장), 吳鍾基(한국과학기술원교수)동문을 선임했다.

同會는 이날 14대 동창회장이었던 咸景浩(60년卒·덕천정밀대표)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鄭旻珉동문을 비롯 3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또한 同會와 사길장학회에서 선발한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어영문학과

金鍾云회장 선출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玄永源)는 최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金鍾云(57년卒·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사진)동문을 선출하고 柳津(83년卒·풍산금속부사장)총무의 연임을 결정했다.

전기공학과

文熙晟회장 연임기로

전기공학과동창회(회장 文熙晟)는 지난 9일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95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심의, 9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文회장의 연임을 비롯 신임 임원진 선출도 있었다. 고문에 李達雨(한국코트렐회장)

치대31회

새 회장에 朴仁出동문 추대

치대31동기회(회장 盧壽永)는 최근 힐튼호텔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97년 졸업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 개선에서는 회장에 朴仁出(예치과원장), 부회장에 金鍾吉(치과과원장), 鄭鎬吉(강서치과과원장), 총무에 金載英(해정치과과원장), 재무에 金天

植(동방치과과원장), 섭외에 金在燦(치과과원장)동문을 각각 선출하고, 97년 2월 28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에에서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또한 모교에 기부금 출연과 전달방법, 회비, 당일행사 내용 등을 상세히 논의하고 은사님도 초청하기로 했다.

법대15회

신임회장에 孫京植동문

법대15동기회(회장 故 金東栽)는 최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신임회장에 孫京植



(제일제당회장) (사진)동문을

선출하고 孫회장과 회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했다.

孫회장은 재단법인 관악회이사로서 관악출 보수공사시 협찬을 하는 등 그동안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차후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회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정치학과

총선 당선동문 축하

정치학과동창회(회장 金榮國)는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96년도 제1차 이사회겸 15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가졌다.

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정치학과 동문 21명은 학창시절 길었던 정의감과 열정을 한국정치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창회 임원을 비롯 정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당선 동문들을 축하했다.

(熙)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은 모교는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서의 자긍심과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온 국민의 성원과 애정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최고」라는 것만 믿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게 됐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가진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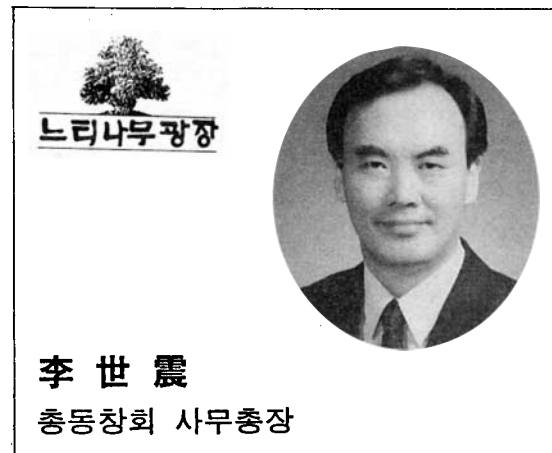
현재 모교는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가늠하는 예산 규모, 연구실적, 실험실습시설, 연구비, 국제화 수준등에서 선진 외국대학은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국내 일부대학에도 뒤쳐져 세계 8백위를 밀도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인재는 많이 모여드나 이 인재들을 세계 경쟁에서 우뚝서게 하는 뒷받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재정·인사 자율에 맡겨야

모교는 서울대인만의 대학이 아니다.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이라는 말은 결코 小乘의인 발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 모교에 거는 기대와 책임을 통감하는 大乘의인 의지와 노력의 표현인 것이다. 「서울대법」 제정은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모교는 교육법과 동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설치령 하에서는 대학 재정, 인사의 자

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모교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연구중심,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도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이러한 규제와 제약을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



李世震

총동창회 사무총장

「서울대 법」 절실하다

을 갖추자는 것이 「서울대법」 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모교를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법적지위를 교육부의 획일적인 감독권에서 탈피케 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통일을 대비한 학문의 본산이 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마련, 재원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둘째, 국립대의 특성상 그동안 정부의 일반회계에 포함돼 대학재정을 운영하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본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아래 수익사업을 활성화한다. 셋째,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서 진리탐구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뒤 명실상부한 학문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학문, 국가경쟁력 위한 길”

그러나 「서울대법」 제정은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교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다소의 오해와 반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대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일부의 반대와 오해를 무릅쓰고 개혁과 자기변신을 위해 과감히 나선 모교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무엇보다 「서울대법」 제정이 「나만 잘 나가겠다」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앞장서서 조국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세계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확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제15대 총선을 거쳐 당선된 1백66명의 동문이 국회에 등원했다. 이들의 결집된 역량이 모교 발전에도 큰 힘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본보 편집주간)

서울대동문에게함

지성인의 자세 되돌아 보자

張東萬(61년 文理大卒)재미 자유기고가



한국 지성의 상아탑을 자부하는 서울대 출신들의 자화상을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분석한孔堯재 동문의 「서울대 인論」(본지 美洲版 96년 2월 15일자)을 감명 깊게 읽었다. 우선 孔동문의 사물을 새롭게 보는 예리한 안목 그리고 자신(서울대인)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는 비판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서울대인들, 그들의 국가적·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긍정적인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역기능에 주로 초점을 맞춘 孔동문의 글을 보면서 과연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성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엘리트가 무엇인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랑케스터에는 화란 계통의 Amish 사람들이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전기·자동차 등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초등학교 이상 상급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자 해독만으로

족하다. 그 이상 지식의 습득은 결국 남을 이용·착취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오늘날 같이 사회 각 분야가 전문화된 고도의 하이테크와 정보화 시대에 이같은 인생관과 생활태도는 일소에 부칠 수밖에 없는 한낱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에 지나지 않지만 과연 지식·지성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Amish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이용·착취하는 지혜」에 불과하다고 보는 지식과 지성을 갖춘 소위 지식인·지성인의 자세가 또한 권력 앞에선 어떠한가?

나폴레옹이 베를린에 진주했을 때 세기의 문호 괴테는 「Geist der Welt」(세계의 정신)라고 환호하고 세기의 악성 베토벤은 교향곡 「영웅」을 작곡, 헌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상 두가지 실례는 소위 지성의 속성과 지성인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눈을 우리 주변, 우리 사회로 돌려 보자.

우리 서울대인들은 한국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라는 자부심(내지 우월감)을 갖는다.

그런데 명문대·엘리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치열한 입시경쟁은 결국 IQ싸움, 그 IQ싸움에서 어느 한 때 영어문법 하나 수학 방정식 하나 더 잘 외운 것이 뭐 그렇게 대견할 것인가? 그리고 4년 또는 6년 동안 부지런히 쌓은 지식과 학문, 그 지식과 학문이 많고 깊을수록 Amish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결국 남을 이용·착취하는 지혜가 그만큼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식을 올바르게 써야

본지 같은 날짜 또 다른 동문(서울 李年憲)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육사 출신 장교의 눈으로는 국가의 요직에 많이 있는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라는 게 모조리 부패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어찌해서 서울대인들이 이로부터 이같은 비난과 지탄을 받는가?

높은 IQ로 획득한 남보다 많은 지식과 학문을 오직 자기 에고만을 위해 쓰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지식과 학문을 사 용하는데 있어 시(是)와 비(非), 정(正)과 사(邪)는 도의시

하고 오로지 이(利)와 해(害), 득(得)과 손(損)만을 저울질해 자기에게 이와 득이 되는 길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서울대 출신 엘리트(해외 유학과 포함)들이 3, 5, 6공 군사독재 시절 「잘못된 역사」의 창조 및 그 유지·발전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두뇌를 바쳤던가?

어차피 어느 시대나 역사는 강자의 편, 그런데 지성·지성인은 최강자는 못되면서 항상 강자의 편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비극이 있으니 이제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서울대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참다운 지성인, 참다운 엘리트가 되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나 개인의 이득과 출세를 위해 쓰기에 앞서 그만한 지식과 학

문을 못 갖춘 사람들 그리해서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억압받고 빼앗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바칠 때에 그 지식과 학문이 진정 참 빛이 나리라고 보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빛나는 학문이 돼야

끝으로 지금 미국에서 발발하고 있는 우리 서울대인들을 생각해 본다. 과연 한국의 명문대를 나온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긍심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설혹 어떤 의욕이 있더라도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갖춘 동문이 몇이나 될 것인가?

스스로 돌아해보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창회보에 게재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거나 신상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우편뿐만 아니라 전화·FAX·PC통신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이름, 단과대학 및 졸업년도와 연락처를 정확히 써 주십시오.
(우)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 화) (PC 통신)
직통 (02)702-2233 천리안 ID: SNUA
FAX (02)703-0755 나우누리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야심에 가득찬 경기도”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부문 경영자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① 경기도청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정보와 권한이 각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명령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소신껏, 신명나게 펼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서울대 동문이며 그동안 눈부신 활동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본보는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맞아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탐방,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청 동문 현황〉

李鍾基	축산과장	64년 農大卒
柳基昇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	64년 獸醫大卒
崔松雄	도의회사사무처문교전문위원	65년 農大卒
俞宇烈	농업정책과장	66년 農大卒
朴瑞淳	가축위생시험소장	67년 獸醫大卒
金鍾皓	농업교육위원	68년 農大卒
金昌洙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	68년 獸醫大卒
崔榮來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69년 獸醫大卒
李榮雨	지방수의사	71년 獸醫大卒
白英蘭	공무원교육원 교학과	72년 師範大卒
蘇秉周	국제통상협력실장	73년 農大卒
李成植	축산과 가축위생계장	75년 獸醫大卒
金正翰	농산유통과장	78년 農大卒
黃俊基	산업경제국장	79년 人文大卒
禹鍾泰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과장	80년 獸醫大卒
徐相教	가축위생시험소 시험계장	84년 獸醫大卒
金香淑	법무담당관실 송무2계	86년 人文大卒
許泰雄	농산유통과 채소특작계장	89년 農大卒
柳俊世	투자담당관실 투자조정계장	91년 社會大卒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선 李仁濟도지사



현재 경기도청에는 李仁濟(72년 法大卒·本會理事)도지사(사진)를 비롯해 蘇秉周국제통상협력실장, 黃俊基산업경제국장 등 20여명의 동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

『주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고객』이라고 강조하는 李仁濟도지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동시에 이룩하려는 야심찬 노력 덕분에 최근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부문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일등경기·일류한국이 목표

경기도는 「도지사 대화의 날」, 「이동도지사실」 등을 운영해 일선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다. 「몸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투명한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여성정책실」 「대민

봉사담당관」 「민원 후견인제도」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사무전결체리를 대폭 하향조정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했다.

공격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공격적 경영을 하자」는 기치 아래 경기도는 일본, 중국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중소기업종합센터를 건립해 유망 중소기업 1만 업체를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의회사무처, 문화체육과 등을 거친 柳俊世동문이 투자조정계장으로 있는 「투자담당관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월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곳은 즉흥적인 예산편성 및 증복, 과잉투자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20여명의 동문 눈부신 활약

李鍾基축산과장, 俞宇烈농업정책과장 등 경기도청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 대부분은 農大, 獸醫大 출신이다. 이들은 농·어업, 축산업 등의 과학화, 선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金正翰농산유통과장은 지난 93년 농정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대학 3학년 때인 지난 87년 기술고등고시에 최연소 합격한 許泰雄동문은 총

무처 수습행정관을 시작으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교관을 거쳐 농산유통과 채소특작계장을 맡고 있다. 許동문은 그동안 경기도 교통난 해소책 마련, 교관평가제, 순회강사제 도입 등을 통한 공무원교육원 평가제도를 개선했으며, 현재 WTO출범이후 특용작물, 채소 등의 유통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해온 金香淑동문은 현재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업무담당자로서 각종 심의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4시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

에코브리지(자연생태계 연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는 환경오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공해발생원의 배출실태를 감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완료해 오염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2001년까지는 가연성 쓰레기 80% 소각을 목표로 1시·군 1소각장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모습 만들기운동 전개

전체 예산중 건설비의 1% 상당액을 문화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경기도의 독특한 문화적 기질과 색채를 자리매김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7백50만 경기도민 한마음 축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제 도예문화 예술축제」 「국제 꽃 박람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오는 97년 「세계연국제」를 유치하게 됐다.

경기도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추진과 세계로 열린 사회 기풍을 진작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로 향한 도민의 야망 눈길

그 일환으로 일본 가나가와현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고, 통상교역 역량 증대를 위해 중국 심양에 「한국경기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5년 12월에는 경기도 「세계관」을 설립 운영해 내·외국인을 상대로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 자매 결연지역의 상품들을 상호 전시함으로써 호혜적 통상 증진을 도모한 바 있다.

李仁濟도지사의 열정 어린 道政목표가 그 결실을 거둬 일등경기·세계 속의 경기도로 약진할 수 있기를 우리 동문 모두 기원해 본다. (志)



李仁濟도지사가 평택시 룡복천 현장을 방문했다.

동정

수상

▲金元燮(52년) 工大卒·경원대 총장·本會理事= 제31회 5·16민족상 학예부문상을 수상.



▲林亨珍(55년) 師大卒·인천교대교수= 지난 17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선정하는 제28회 신사임당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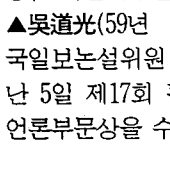
▲張明洙(56년) 工大卒·전북대 총장·本會理事= 최근 96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



▲安秉禧(56년) 文理大卒·모교교수= 최근 국어사 연구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7회 3·1문화상 학술상을 수상.



▲李忠好(58년) 工大卒·한국렌탈사장= 최근 생산성본부가 주최한 전국생산성향상추진대회에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생산성대상(고객만족부문)」을 받았다.



▲吳道光(59년) 文理大卒·前한국일보논설위원·本會理事= 지난 5일 제17회 평안북도문화상 언론부문상을 수상.

▲金昇卿(59년) 商大卒·중소기업은행장·本會理事= 최근 제4회 환경운동대상을 수상.

▲禹贊穆(59년) 商大卒·조흥은행장·本會理事= 경로효친에 기여한 공으로 어버이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景商鉉(56년) 工大入·前정보통신부장관·한국전산원 연구위원·本會理事= 최근 한국통신학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대상 기술부문상을 수상.



▲尹東潤(61년) 法大卒·前체신부장관·정보문화센터 이사장·本會理事= 최근 한국통신학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대상 진흥부문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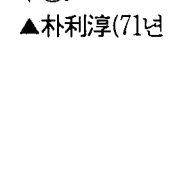
▲朴健裕(6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CFC 연구부장= 최근 불화탄소 제조공정 개발과 기본 설계기술 향상에 힘쓴 공로로 제37회 3·1문화상 기술상 수상.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그룹총괄회장 겸 대우중공업회장·本會副會長= 최근 한국무역학회가 선정하는 제7회 「무역인 대상」을 수상.



▲曹鍾守(70년) 農大卒·전남대교수= 최근 산학협동재단이 제정한 제20회 산학협동상을 수상.



▲朴利淳(71년) 工大卒·경북대

교수= 최근 한국고분자화학회가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

이동·선임

▲李學來(56년) 文理大卒·한양대교수= 최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경기인 출신 교수들의 친목모임인 「聖火會」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임.

▲朴朝駿(57년) 文理大卒·서울갈보리교회목사= 최근 한국비디오선교회 정총에서 세계영성문화원 제2대 원장에 선임.

▲成贊慶(57년) 文理大卒·성균관대대우교수= 최근 한국시인협회 신임회장에 선임.

▲李星珍(57년) 師大卒·모교교수= 최근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에 선임.

▲金昌達(57년) 商大卒·前한국종합기술금융사장·本會理事= 최근 태국에서 열린 제19차 아태지역 개발



금융기관 연차총회에서 중진 명예운영위원장에 추대됐다.

▲金昌悅(58년) 法大卒·방송위원회위원장·本報論說委員= 최근 환경민간단체 진흥회 신임 이사장에 선임.



▲崔俊成(59년) 文理大卒·충남대교수·本會理事= 최근 한국니체학회장에 연임.

▲金永祥(59년) 法大卒·전주우석대교수= 최근 전주우석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에 취임.

▲金明海(59년) 師大卒·신방학중학교감= 최근 중앙교육연구원 장학사로 발령.

▲白承浩(59년) 齒大卒·치과의원장·本會理事= 최근 국제와이즈멘클럽 국제의원 및 아시아지역 차기총재에 당선.

▲崔敏浩(60년) 農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최근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전문학교 초대교장에 취임.

▲高時天(60년) 文理大卒·건국대경영대학원장= 최근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朴燦久(60년) 師大卒·서울시교육연구원장·本會理事=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에 선임.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교수= 최근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에 선임.

▲金貞順(60년) 醫大卒·모교보건의대학원 교수= 최근 모교 보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에 이즈연맹 제



3대 회장에 취임.

▲梁承澤(61년) 工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최근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협동연구소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선임.



▲鄭作燮(61년) 工大卒·중앙대교수= 최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에 임명.

▲韓昇洲(62년) 文理大卒·前외무부장관·고려대교수= 최근 유엔 사무총장 키프로스 담당 특별대표에 선임.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사무차장급으로 유엔 진출 한국인으로는 최고위

급.
▲沈載亨(63년) 文理大卒·모교교수= 최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독도해양수산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피선.

▲朴相禹(64년) 文理大卒·前농림수산부차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선임.

▲曹圭香(64년) 法大卒·국정교과서사장·本會理事= 최근 부산외국어대학교 제3대 총장에 선임.



▲愼侑根(64년) 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최근 한국인사·조직학회 정총에서 신임회장에 선임.



▲安明洙(64년) 商大卒·前하나은행상무·本會理事= 최근 하나파이낸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鄭明世(65년) 文理大卒·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 회장= 최근 대덕단지내 첨단의료원유치위원장으로 선임.



▲朴容晟(65년) 商大卒·OB맥주 회장·本會副會長= 최근 국제상업회의소 한국국내위원회 정총에서 차기 의장에 피선.



▲裴洵勳(66년) 工大卒·대우전자회장·本會理事= 최근 아태

경제협력체(APEC)경제자문위원회 한국측 위원에 선임.

▲朱明煥(66년 農大卒·前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양묘과장)=최근 서울시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에 선임.

▲李燦鎔(66년 文理大卒·前駐美公보관장)=최근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에 취임.

▲姜永周(66년 商大卒·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최근 국제심판소장에 취임.

▲高成光(67년 文理大卒·前MBC 보도이사)=최근 대전 MBC사장에 취임.

▲柳豪政(67년 法大卒·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최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원장에 연임.

▲高在允(67년 商大卒·홍중물산대표)=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민관사업체인 (주)전남무역의 초대 공채사장에 취임.

▲金聲培(68년 工大卒·제일제당부사장)=최근 제일제당 인도네시아 법인 PT CSI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李起澤(69년 齒大卒·대한치



과의사협회 부회장)=최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 4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서 제2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피선.

▲姜用熙(70년 文理大卒·경북대교수)=최근 한국천문학회 신입회장에 피선.

▲朴三圭(70년 行大院卒·前공업진흥청장·本會理事)=최근 광운대학교 대우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玄在賢(71년 法大卒·동양그룹회장·本會副會長)=최근 아·태경제



협력체(APEC) 경제자문위원회 한국

측 위원에 선임.

▲文龍麟(71년 師大卒·모교교수)=최근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

▲姜根鐸(72년 文理大卒·前피지대사)=최근 부산시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부임.

▲崔圭弘(72년 文理大卒·연세대교수)=최근 한국우주과학회 제7대 회장에 선임.

▲殷榮洙(73년 工大卒·한국에너지연구소 원전기술지원실장)=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에 취임.

▲金周亨(73년 農大卒·제일제당전무)=최근 제일선물 대표이사 전무로 영전.

▲南相宇(73년 行大院卒·本會理事)=최근 서울시 용산구청 부구청장으로 부임.

▲李珉和(76년 工大卒·메디슨

사장·本會理事)=최근 아·태경제협력체(APEC) 경제자문위원

회 한국측 위원에 임명.

▲鄭龍煥(79년 文理大卒·前인텔코리아 영업이사)=최근 인텔코리아 사장에 취임.

▲趙炳默(81년 大學院卒·강원대교수)=최근 96년도 한국목재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피선.

▲張勝和(85년 法大卒·모교교수)=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산하 「5인 상설전문가그룹」의 상임전문위원으로 선임.

▲鄭在訓(89년 大學院卒·前모교 약학대학 연수연구원)=최근 삼육대학교 약학과 전임강사에 임용.

행사·출간

▲李炳浙(43년 農大卒·한국사료협회장)=최근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회원사 사료업체들이 ISO9000 품질 SYSTEM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관련 교육훈련 등 기타 관련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협의.

▲白樂榮(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副會長)=일본 慶應大 및 東海大와 학술 교류 협정 및 상호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

▲林錫珍(56년 文理大卒·명지대 동서철학 비교연구소장·本會理事)=최근 독일 아우구스 부르크대 철

학과와 아르노 바루치 교수·초

청 현대법철학을 주제로 서강대 이나시오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

▲丁胄燮(57년 師大卒·용산고교장·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本會理事)=최근 영국 Keel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영어교육협의회 연례연구대회에 참가.

▲李吉女(57년 醫大卒·인천길병원이사장·가천문화재단이사장·醫大同窓會長)=최근 인천가천인력개발원에서 제4회 「가천문화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 상근부회장·수원북중학교 총동창회장·本會理事)=지난

15일 수원의 「명가」회의실에서 북중언론인동창회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선출 및 당면과제를 협의.

▲洪斗杓(61년 文理大卒·KBS사장·本會副會長)=최근 연세대 개교111주년 기념식에서 방송문화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尹世榮(61년 法大卒·서울방송문화재단 이사장·本會副會長)=미국 하버드대학 발전기금으로 오는 2

천년까지 문리대에 3백만달러를 기부하기로 하고 최근 협정서에 서명했다.

▲李相完(61년 醫大卒·정형외

과의원장·대한교통의학회 회장·本會理事)=최근 한국 배상의학회 제10차 학술대회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관해 특강.

▲李秀哲(68년 音大卒·세바스티안실내악단리더)=최근 호암아트홀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姜萬洙(69년 法大卒·관세청장·本會理事)=최근 무역센터 무역클럽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조찬간담회에 참석, 「96년도 관세행정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

▲金光俊(69년 法大卒·前전영통상대표·本會理事)=최근 신경영추진방안연구소 사무실을 개소하고 「회사를 살아가는 지혜」를 개명출간.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4-19 동경빌딩 6층 전화: 565-2602)

▲陳銀淑(85년 音大卒·작곡가)=최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로노스 4중주단이 초연하는 자신의 작품 「현악4중주와 전자음향」을 위한 마라메타 스트링 연주회 참관차 독일에

서 일시 귀국.

▲尹九燮(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 병원에서 방사선과 진료를 시작.

▲林龍成(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시작.

(정리=崔恩熙기자)



를 살아가는 지혜」를 개명출간.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4-19 동경빌딩 6층 전화: 565-2602)

▲陳銀淑(85년 音大卒·작곡가)=최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로노스 4중주단이 초연하는 자신의 작품 「현악4중주와 전자음향」을 위한 마라메타 스트링 연주회 참관차 독일에

서 일시 귀국.

▲尹九燮(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 병원에서 방사선과 진료를 시작.

▲林龍成(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시작.

(정리=崔恩熙기자)

를 살아가는 지혜」를 개명출간.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4-19 동경빌딩 6층 전화: 565-2602)

▲陳銀淑(85년 音大卒·작곡가)=최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로노스 4중주단이 초연하는 자신의 작품 「현악4중주와 전자음향」을 위한 마라메타 스트링 연주회 참관차 독일에

서 일시 귀국.

▲尹九燮(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 병원에서 방사선과 진료를 시작.

▲林龍成(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시작.

(정리=崔恩熙기자)

를 살아가는 지혜」를 개명출간.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4-19 동경빌딩 6층 전화: 565-2602)

▲陳銀淑(85년 音大卒·작곡가)=최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로노스 4중주단이 초연하는 자신의 작품 「현악4중주와 전자음향」을 위한 마라메타 스트링 연주회 참관차 독일에

서 일시 귀국.

▲尹九燮(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 병원에서 방사선과 진료를 시작.

▲林龍成(85년 醫大卒)=최근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시작.

(정리=崔恩熙기자)

를 살아가는 지혜」를 개명출간.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4-19 동경빌딩 6층 전화: 565-2602)

- 바로 잡습니다 -

지나호(제218호) 5면 총선 당선자 명단중 전국구 자민련 「金許南」을 「金許男」으로, 16면 모교소식 석·박사논문 제출 기한 경과자 구제기사중 「97학년도」를 「99학년도」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전남 무안의 국민회의 소속 裴鍾茂(53년 師大卒)동문이 추가되어 제 15대 총선 결과 1백66명의 동문이 선량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李宗勳·禹德昶동문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올해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 3명 가운데李宗勳(57년工大卒·한전사장·本會副會長)동문이 공공부문 수상자로,禹德昶(63년 商大卒·쌍용그룹부회장·本會理事)동문이 전문경영인부문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李동문은 93년 취임 이래 기업윤리강령을 채택하는 등 「깨끗한 기업」을 구현하는데 노력했으며 필리핀과 중국 등에 원자력 발전기술을 수출하는 등 해외진출에 힘을 기울인 점이 인정됐다.

禹동문은 90년 쌍용양회사장에 취임한 뒤 시멘트 중심의 사업구조를 신소재·건자재 등으로 다각화하고 해외 합작투자를 통해 세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점이



李宗勳동문



禹德昶동문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지난 23일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있었다.

제1회 「서·음 앙상블」 연주회 동문참여 유도해 매년 열기로

96년 모교 음대를 졸업한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음 앙상블(리더 金成恩) 제1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2일 유림아트홀에서 있었다.

동문들의 음악적 교류와 활발한 연주활동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서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모짜르트와 슈베르트, 슈만의 곡 등 모두 4곡이 선보였다.

바이올린에 金眞丞(96년卒·예일대석사과정입학예정), 클라리넷에 尹새로미(96년卒·맨하탄음대석

사과정입학예정), 朴在媛(96년卒·파리국립음악원석사과정입학예정)동문, 피아노에 朴輝岩(96년卒·모교대학원석사과정)동문, 하프에 李周垣(96년卒·N.E.C. 석사과정입학예정)동문, 클라리넷과 첼로는 모교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 동문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선후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熙)



朴重培 환경대학원 동창회장

“동문 결속의 뿌리 내리는데 힘쓸 터”

최근 환경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朴重培(71년 行大院卒·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동문을 만나 보았다.

— 취임 소감은.

『이제 공직일선에서 물러나 후배 공무원들의 복지를 살피는 직책을 맡게 되어 근무환경이 안정되고 조금은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어 동창회의 일을 맡아 보게 됐습니다. 경험이 없어 부담감은 있으나 이제 남은 일생을 후진의 양성에 바친다는 뜻에서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 행정대학원을 나와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이 된 경위는?

『저는 모교 행정대학원 도시·미시지역계획학과를 71년에 졸업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미시지역계획학과가 행정대학원 산하에 있었는데 후에 환경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결국 행정대학원과 환경대학원을 모두 졸업하게 된 셈입니다. 현재 도시·미시지역계획학과를 나온 모든 동문들은 환경대학원동창회 회원으로서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활동은.

『약력이라야 공직생활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하거나 다양한 삶은 아니었지만 전문 지방행정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67년에 제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내무



부 등에서 줄곧 일해왔고 95년에 충남도지사를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직생활 도중에 상도 여러번 받았지만 굳이 소개하자면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은?

『우리 환경대학원은 설립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성장과 개발만이 국가적, 사회적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던 때라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고 배부른 타령처럼 들릴 때였지요. 그러나 불과 25년이 지난 지금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인류

의 절박한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환경대학원을 설립하고 이끌어 주신 盧隆熙박사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선견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지 동문들간의 결속기반이 약한듯 합니다. 때문에 동창회의 뿌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교의 발전과 사회각계에서 도시계획과 환경보호의 중책을 수행하고 계신 동문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후배 지원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志)



지방자치의 명암

작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필자는 정년퇴임 후 잠시 쉬다가 얼마 전부터 경기도의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일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의왕시의 시장과 회식할 기회가 있었다. 의왕시는 관할구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여러가지 점에서 여건이 나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의왕시장은 이 도시의 장래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내년에 세계연극제를 유치하기로 확정됐는데 연극제의 개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것은 확실히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최근 성남시에서 시장이 3백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많은 수혜자에게 집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다가 각계의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兪 熹 명예교수

성남시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극도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재를 제쳐놓고 장학금과 같은 개인재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방대한 자원을 이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성남시 장학금 사건으로 노

정된 문제가 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의 관계이다. 직선자치단체장의 의욕만 앞세운 아집이 풍부한 경험을 지닌 직업공무원들의 건의

「행정의 경영화」에는 큰 성공 단체장 아집이 갈등 빚어내

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시설의 건립이 허용되며 연극제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시설을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2년 후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직선단체장인 까닭에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고

를 도외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갈등을 조성한 사례의 하나라 하겠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례가 누적될 때 30년만에 모처럼 되찾은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로는 너무나 고가라는 인상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코골이 수술않고 고친다”

鄭聖昌(67년 齒大卒)모교 교수



대부분의 코골이는 우리가 숨쉬는 동안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게 되는 인후부가 좁아져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는 공기가 입천장, 목젖, 편도, 혀 등과 같이 유연한 구조물을 지나게 되는데, 낮에는 이 부분들이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주위 근육들이 도와주어 공기 통로를 막지 않아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근육들이 이완되어 늘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기 통로가 좁아져서 이 부분을 공기가 통과할 때 주변의 부드러운 부분들을 진동시켜 코고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심하면 호흡장애 일으켜

한편 매우 심한 형태의 코골이 환자 중에는 수면중 근육 이완이 심하거나 혹은 심한 비만증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공기 통로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막힐 수 있다. 이때 공기가 폐로 전혀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가 얼마간 지속 되면 폐가 신선한 공기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지한 뇌가 명령하여 우리 몸을 깨우고 근육을 수축시켜 공기 통로를 다시 열어 준다. 이러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수면방법이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줌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첫째,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후부의 구조물들이 아래로 처져서 공기 통로를 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체중을 줄이는 것이다. 과다한 체중은 목조직과 폐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호흡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은 체중감량에 도움을 주고, 근육을 보다 탄력있게 유지하며 폐의 활동력을 증진시켜 준다.

넷째, 술과 약물을 금하는 것이다. 술과 진정제, 수면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들은 호흡을 느리고 얇게 하며 평상시보다 인후 주위의 근육들을 이완시켜 공기 통로를 막

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수술형태는 목젖, 연구개의 일부와 편도선 같은 목구멍의 주위 조직을 잘라 인후부로부터 제거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며 수술 후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주 정도는 인후부에 통증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옆으로 누워 자면 좋아

수면중 호흡 장애의 치료를 위해 선진국 등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잠을 잘 때 산소 공급장치를 착용하게 하여 기도를 통해 강제로 공기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효과면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잠잘 때 입안에다 틀니 비슷한 것을 끼우는 것으로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작용이 별로 없으면서도 그 효과가 뛰어나다.

이상 소개된 치료법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과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후에는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편안한 수면과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상쾌한 다음날을 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黃秉冀·韓末淑 가족

가야금 현보다 다섯이나 많은 동문 일가

모교 동창회보가 여섯부나 배달되는 가정. 혼을 다한 가야금 연주로 유명한 黃秉冀(59년 法大卒·이화여대교수)동문과 함께 가정을 꾸미고 2남 2녀의 자녀들을 장성시킨 소설가 韓末淑(55년 文理大卒·소설가)동문의 북아현동 자택에서는 관악산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큰 아들 準默이와 작은 아들 源默이가 모두 모교 물리학과를 졸업했지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 관악산 자락을 보노라면 黃선생과 저는 아주 행복한 감회에 젖곤 합니다』

장남, 가을학기 모교 부임

黃準默(86년 自然大卒)동문은 하버드 대학 생활비를 포함한 전액 장학금 수혜자로 수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노를 담대학 교수, UC버클리대학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번 가을학기에 모교 수학과 조교수로 오게 되어 예일대 석사과정을 수료하게 될 며느리 宋敏先(89년 人文大卒)동문과 함께 귀국한다.

黃源默(91년 自然大卒)동문은 보스턴 대학에서 역시 형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육군사관학교 물리학과 교수요원으로 재직중이다.

韓동문의 두 아들이 모교 학부과정을 마쳤을 뿐인데 유학 후 곧바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모교 교육의 우수성을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흐뭇해했다.

큰 딸 惠敬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남편 金容範(85년 經營大卒)동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金容範동문은 현



가운데 黃秉冀·韓末淑부부, 좌로부터 장녀 惠敬, 차녀 秀敬, 장남 準默, 차남 源默.

재 재무부 과장 유학중으로 미국 윈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작은 딸 秀敬씨도 이화여대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재미유학중인 남편 林尙勳(87년 經營大卒)동문과 함께 미국에 체류중이다.

『아이들에게 되도록 잔소리를 안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지만 두가지는 늘 강조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과 누구에게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지요』

가족사가 곧 모교역사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끝이 없는 韓동문에게 현재 작은 아들 내외를 제

외하고는 모두 미국에 있어 그리움이 더욱 짙은 모습이다.

黃동문 누나의 손자 吳相珉군이 자연대 물리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것을 비롯, 10여명의 친족들이 서울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韓동문의 친가족에는 우선 큰 형부 尹承鶴(41년 京城帝大卒)동문, 尹동문의 아들 尹明根(62년 文理大卒)동문, 딸 尹慶根(70년 文理大卒)동문이 있다. 작은 형부 金振興(36년 京城高商卒)동문가족도 서울대가족이다. 金동문의 큰 아들 金虎起(60년 工大入)동문은 공대 2학년 재학중 유학을 떠났고, 작은 아들 金鳳起(71년 工大卒)동문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韓동문의 오빠 가족중에도 큰 딸 韓承姬(62년 音大卒)동문과 작은 딸 韓承源(64년 美大卒)동문, 미국 롱아일랜드주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韓承信(76년 醫大卒)동문이 있다. 모두 가야금 현보다도 다섯이나 많은 수의 동문이 한 집안에 있으니 그야말로 가족사 자체가 모교의 역사인 듯 하다.

국악원에서 만나 결혼해

『黃선생과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을 배우다가 만났어요. 인간문화재 1호이신 金允德선생님께 영산회상과 산조 등을 배웠지요. 59년 모교에 국악과가 생겼을 때 당시 현제명 학장님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1회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함께 국악과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지요』

黃동문의 96년은 유난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후학들이 마련해준 「황병기 가야금 축제」에서 대표작 「침향무」 「비단길」 「미국」 「밤의 소리」 등을 선보이며 6대도시를 순회 연주한다. 黃동문이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도 선보인다. 5월에는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가곡 「알 수 없어요」를 초연하고, 8월에는 가야금 신곡 「달하 노파곡」을 초연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현대음악제에서 白南準씨와 함께 한국음악을 연주하고, LA에서 한국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한다. 10월에는 미국 동부지역 5개 대학에서 강의와 연주를 할 계획이다.

64년부터 黃동문이 해외연주를 시작한 이래 늘 동행해 온 韓동문은 74년 네덜란드에서 우리의 궁중무용 「춘앵무」를 직접 추어 보이기도 했다. 여학사회의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韓동문은 93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한국펜클럽에서 추천을 받는 등 작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熙)



환경운동연합 高建 공동대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환경과수꾼의 역할을 해온 「환경운동연합」의 高建(60년 文理大卒·명지대총장)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 창립 배경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의 역사는 곧 한국환경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2년 선진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그 모태로 「온산병」이 공해병임을 규명하는 등 산업화의 역기능을 정면으로 고발하던 단체였지요. 이후 공해추방운동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참여 범위가 일반 대중으로 확대됐고 지난 93년 4월 2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과 통합, 창립된 것이 바로 환경련입니다. 현재 환경련은 「지속가능한 환경」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실천하는 생활 속의 환경운동 ▲산업생산체계의 친환경화를 통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공해추방운동 ▲실현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해외환경운동단

체와의 국제연대를 통한 지국적 차원의 환경운동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활동은.

『그동안 그린피스와 연대하여 반핵운동을 펴는 한편 「굴업도의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시민환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환경대학을 개설했으며 시사잡지인 월간 「환경운동」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법률상담실을 운영, 자원봉사자인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해 주고 있으며, 시민환경정보센터가 지난 95년 1월부터 환경공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면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련은 매년 7대 중점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의 가장 큰 사업은 「바다를 살리자」는 해양보호 캠페인입니다. 환경련은 현재 준비

위원회의 형태로 정식 발족을 기다리는 4곳의 지역조직까지 합해 총 24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가입절차는.

『환경련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월간 「환경운동」의 뒷면에 있는 회원가입엽서를 작성해 보내 주시거나 직접 환경련에 전화(735-7000) 내선 204, 205로 회원가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자원봉사자 또한 같은 요령으로 전화를 하셔서 희망하는 일과 분야를 밝히면 담당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은.

『저는 공동대표로 취임하면서 이제 시민전체가 생활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한 실천운동을 전국 환경련을 통해 펼쳐 나갈 것입니다. 특히 환경련은 한국환경운동의 요람이 될 한국민간환경운동센터의 건립운동을 시작해 그



사업비인 50억원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의 힘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집이 건립될 것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金在順대표, 李世中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임원, 또는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쾌적한 자연속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동문들이 환경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志)

동문수필

모임

採訪

萬壽會 (경영대학원 4회)

관심을 갖자!

관심있게 보면 잘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에 갔을 때 나무에 빨강게 핀 유도화가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꽃이 유난히 눈에 띄고 색깔이 고와서 관광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보니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꽃에 관심이 없었고 이와 같이 많이 피어 있는 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9년동안 발견못한 꽃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 갔다. 그랬더니 유도화가 교정에 한 그루 있고 꽃도 피어 있었다. 이 학교에 근무한지 벌써 9년이나 되는데 왜 이 꽃 옆을 매년 지나다니면서도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것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년 그곳에 있었건만

더욱이 유도화와 비슷하게 빨강게 만발한 백일홍도 눈에 띄었다. 백일홍은 백일 동안 꽃이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백일홍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유도화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꽃과 비슷한 백일홍도 알게 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학교에는 백일홍이 네 그루나 만발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홍이 몇 년 동안 학교에 피어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것이다. 보았어도 본 기억이 없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李興鍾(58년 師大卒)단국대 강사

학문도 마찬가지이다.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꾸준히 연마하면 권위자가 되는 것이다.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외국에 유학을 가서 새로운 물고기를 보고 연구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고향에도 그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역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의 물고기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유학을 가서 그 물고기를 연구하고 돌아오니 고향에 있는 물고기가 보인 것이다.

고유문화에도 눈돌려야

관심을 갖자!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관심을 갖고 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것이다. 결코 외국의 문화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면이 보일 것이다. 이 새로운 면을 부각하여 현대에 알맞게 다듬고 고치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가 꽃필 것이다.

서로 雅號부르며 풍류와 멋 즐겨



회원들이 건강을 기원하며 축배를 들었다.

「萬壽會」는 경영대학원 4회 졸업생들의 모임이다. 69년 입학한 43명의 동기들이 함께 졸업을 했는데 그 중 26명이 모여 이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이 공부하던 상과대학은 성북구 종암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 동기생들의 직업은 국회의원, 회사중역, 군장성, 고위공무원 등 다양했고 나이도 천차만별이었다. 회원들 대부분은 상과대학에서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들로 바쁜 일정을 쪼개면서 공부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알았던 학구파들이었다.

강의 후 대표 한 잔 잊지 못해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교수들의 강의 출석 체크는 엄격했고 학점 따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적지않은 나이에 시험공부하고 바쁜 일정에도 빠짐없이 출석하기란 정말 힘겨운 노릇이었다.

물론 멋진 추억거리도 많다.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동기들과 어울려 근처 대포집에서 술 한잔하며 집안 대소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을 하던 기억은 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萬壽會」 회원들은 모두 雅號를 갖고 있다. 서로 雅號를 부르며 풍류와 멋을 즐기는 이

들. 中江 金光朝, 陽泉 金潤澤, 東義 金任植, 義村 金煥淙, 仁谷 金亨基, 西湖 金鴻九, 春溪 文秉岩, 希遠 朴聖東, 南谷 宋煥, 豐庭 沈載學, 昔佑 李鍾實, 志岩 李俊鶴, 芝巖 李徽永, 仁濟 鄭敬學, 學海 趙漢旭, 政巖 蔡榮喆, 素溪 崔鍾洛 등 20여년의 우정을 지켜오고 있다.

고 회 때 금 1냥 거북이 선물

同會는 격월로 모임을 갖고 매년 2, 3차례 골프모임을 갖는다. 모든 행사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집안에 경사가 있었던 동문이 모임의 경비 일체를 맡는다. 회원들은 이 점에 대해 부담을 갖기 보다 오히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편이다. 「어떻게 하면 동기들을 위한 즐거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회칙도 따로 없다. 특별한 계획이나 욕심없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임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회원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회를 맞는 동기에게 금 1냥으로 만든 거북이를 선물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임원은 나이 순으로 돌아가며 하는데 현재 崔旭澈동문이 회장을, 宋煥동문이 부회장을 맡고 있고 총무는 金亨基동문이, 간사는 金煥淙동문이 맡고 있다. (志)

모교소식

「캠페인 200」 강력 추진 발전기금 2백억 조성키로

모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2백억원의 발전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200」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는 鮮于仲皓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교수 및 각 대학(원) 학장들이 우선 발전기금 조성에 동참하여 약정식을 갖고 9

천여만원을 약정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발전기금은 장학금, 학술연구 지원, 도서 확충, 국제 교류, 석좌 및 기금교수제 운영, 각종 시설 및 연구기자재 마련 등에 쓰이게 된다.

「캠페인 200」에 참여할 동문은 모교 발전기금(전화 871-8146~7)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동제 높은 호응속에 마쳐

본회에서 후원한 96년도 1학기 대동제가 지난 14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나흘동안 관악 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이전 대동제와 달리 「Let's off SNU」라는 구호아래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성문화, 자치활동, 서울대 논란 등의 소재를 다루었다.

개막 전날인 13일에는 본부 앞 잔디밭에서 영화 「학생부군 신위」가 상영됐으며 14일에는 8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개막제가 열렸다. 둘째날인 15일에는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배꼽보이기」가 개최됐으며 동아리별 장기자랑과 노래패 「조국과 청춘」의 공연이 있었다.

16일에는 「검열반대 10종 경기」가 열렸으며 도서관앞 계단에는 바닥그림이 그려졌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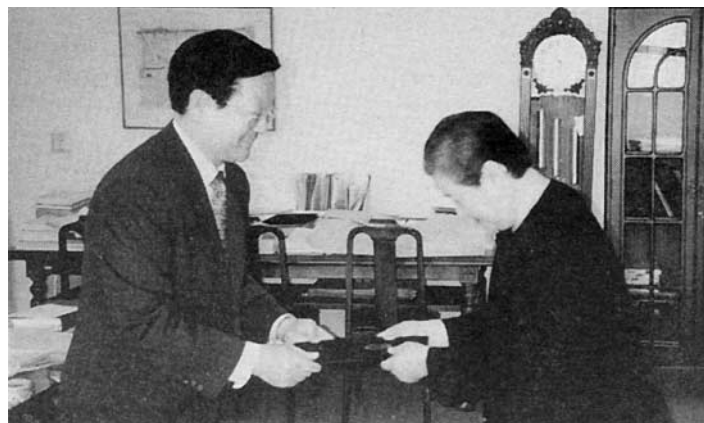
지막 17일에는 「검열반대문화제」를 열고 정태춘, 박은옥씨등 외부 인사를 초청, 여러 형태의 검열문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 보였다.

보대원장에 鄭慶均교수 李純炯의대학장은 연임

지난 4월 11일자로 보건대학원장에 鄭慶均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鄭원장은 58년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69년 미시카고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동경대학에서 보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한 鄭원장은 한국보건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李純炯교수가 4월 11일자로 의과대학 학장에 연임됐



白忠鉉학장이 金惠暎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故 李漢基동문 유족 도서 기증

법과대학(학장 白忠鉉)은 지난 20일 학장실에서 故 李漢基(69년 大學院卒)동문의 도서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미망인 金惠暎음대교수에게 전달했다.

52년 모교 법대교수로 부임, 80년 감사원장으로 전임하기까지 29년간 후진양성에 진력했던 李동문은 지난 95년 2월에 타계했다. 李동문의 유족들은 평소 고인이 아끼던 애장도서 중 법과대학 도서관이 소장하

고 있지 않은 학술도서 3백여권을 후학들을 위해 기증한 바 있다.

「삼성 컨벤션센터」 준공 국제학술회의 시설 갖춰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인 삼성컨벤션센터가 지난 5월 2일 鮮于仲皓총장, 姜普求삼성전자 회장(本會 副會長)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95년 4월에 착공, 1년 1개월 만에 완공된 삼성컨벤션센터는 호암생활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

적 7백55평 규모로 삼성전자에서 50억원을 들여 건립 기증한 것이다.

이 센터에는 2백56명 수용 규모의 3개국 동시통역시설을 구비한 국제행사용 컨벤션홀, 1백12명 수용 규모의 대회의실, 4개의 세미나실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리셉션홀을 갖추고 있다.

「암 연구동」 98년 완공 삼성그룹 李健熙회장 3백억 지원

모교는 종로구 연건동 의대 캠퍼스안에 지상 11층, 지하 4층 연건평 5천평 규모의 「암연구동」을 올 10월 착공해 98년 완공하기로 했다.

삼성그룹(회장 李健熙)이 3백억원을 지원, 건립하게 되는

암연구동은 전국의 암연구자에게 연구시설이 개방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담당할 암정보센터와 암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變)



5월호를 읽고

사회봉사 일화를 좀 더 발굴해야



서울대인 1백 66명이 금배지를 달아 국회의원 수의 55.2%를 점한 글을 보니 국회를 바라보는 서울대인은 물론 국민의 눈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을 감사하는 채찍의 글을 실어야겠다.

회원 동정란을 보니 언론상, 산업훈장, 논문상 등 영예의 수상 소식이 14건, 총장, 회장, 사장이취임 등이 36건, 학술대회, 컴퓨터 기증, 장학금 전달, 월드컵 유치 등 사회봉사 활동 소식이 19건이었다. 사회에 봉사하는 건수가 많이 부각되었으면 한다.

「특별기고」(역사의 진실 밝혀야)와 「이런일 합니다」(민족의 자존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난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좋은 내용으로 많이 게재했으면 좋겠다. 辛大用(57년 農大卒)자유기고가 협회 이사

직장·해외지부 더 많이 소개를...



지면 쇠신이 돋보인다. 다만 서울대 동창생들의 폭넓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직장동창회 구성 및 소식과 해외 지부의 소식 등을 더 많이 실었으면 한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불우한 동창돕기 캠페인」도 권하고 싶다. 모든 동창들이 잘나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훈훈한 서울대 동창회의 따뜻함을 보여주자. 특히 퇴직 및 원로 교수들의 근황을 알려서 서로 찾아뵙고 옛 정을 나누는 보다 인간적인 서울대 동창회로 키워지면 한다.

동정란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나 주소를 넣어 주었으면 한다. 서로 축하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崔浩(70년 新大院卒)대영인터넷서널 대표



정치는 멋진 게임이 되어...

교육자가 되도록 길러졌고 가다듬어졌고 스스로도 교육하는 일이 삶의 보람을 거두는 길임을 자임하며 평생을 살아오다가 「입법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개혁」을 권유하는 간청을 못이겨, 13대 의정레이스에 끼어들었던 것이 벌써 8년이 지났다.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물론 결과는 낙선이라는 실패였으나 나는 그 경험으로 해서 이 나라 정치, 그리고 제대로 되어가는 정치와 제대로 되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치에 관한 자기교육을 시작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정치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나라일수록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때 비정치적인 사회 권역전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그렇게 정치에 의하여 우리 삶이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전전한 민주시민 교육, 정치의식 교육이 실질적으로 전무했었다는 것도 한번 짚어야 할 일임도 깨닫게 되었다.

극한 투쟁은 이제 끝내자

그리고 나는 이 나라 야당을 선택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열 15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즐겁지만은 않은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의 정치상황을 응시하고 있다. 여는 아가 있어 비로소 제 빛이



鄭喜卿(55년 師大卒)국회의원

나고, 여야는 멋과 신바람을 잃지 않는 균형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비로소 정치를 즐길만한 멋진 게임으로 여기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헌정사상 한번도 여야간에 균형있고, 공정한 게임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정치의 참담한 모습이 15대에서도 계속된다면, 어떤 말로 이 나라 차세대에게 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 힘으로 몰아세우고, 극대투쟁으로 투쟁을 부려야하는 정치는 끝나야겠다.

경쟁력과 애국의 길

「경쟁」이란 이제까지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무지막지한 밀어붙이기 경쟁 속에서 생애의 태반을 보낸 우리들에겐 너무 지겨워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의 하나일 것이고, 나 역시 경쟁 없는 사회, 혹은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픈 심정이다.

그러다가도 해외 세미나나 전시회, 학회 등 여러나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어김없이 울화가 치밀고 저들이 이 정도 할 때까지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새삼 경쟁심이 발동하여 치솟는 투지로 무장한 채 씨근거리며 돌아오곤 한다.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자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세계 유수대학들과 비교하면 뒤쳐져도 한참을 뒤쳐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연구개발 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를 지나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음도 알고 있다.

내가 믿는 바로는, 진정한 애국심이란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껏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서 출발한다. 직업이 음악가이든, 운동선수나 학자, 영화감독, 의사, 디자이너, 학생, 교수, 회사원, 가정주부, 식당주인, 택시기사... 그 무엇이든, 애국하는 길은 자기 분야에서 세계인들과 당당한 실력과 자신감으로써 겨룰 수 있는 것, 그리하여 「이 한국인 만만치 않군, 녹록치 않은데」라며 내심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면 그는 「자기 몫의 애국」을 한 것이라고 믿는다.

지속적인 자기개발 필요

그러려면 그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표현능력을 우선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은 그에 앞서 자신의 일이나 생활, 직업,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탁월한 안목과 지식, 실무 능력과 소신, 철학이 먼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朱惠璟(72년 文理大卒)

삼성데이터시스템 교육개발센터장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이 요구됨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내게 「남자같은 여자」라느니 「맹렬여성」 「여걸」 등 멋있고 기분나쁜 칭호를 붙이는데, 어쨌거나 그 누구 못지않게 피끓는 애국심으로 무장한 채 산업현장과 국제무대에서 국력신장과 이 나라의 기술발전을 위해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싸우고 뛰어다니며 누가 뭐라고 부르든 당당하다.

문화
단신

新刊

■삼성전자 신화와 그 비결 —姜晋求 著



일개 셀러 리맨으로 출발, 한국 전자업계 대부분의 위치로 부상한姜晋求(57년 工大

卒·삼성전자 회장·本會副會長) 동문이 고회를 맞아 회고록을 펴냈다.

姜동문은 이 책에서 한국 전자산업과 삼성전자의 발전에 얽힌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놓고 한국 전자산업이 다각화·자동화를 서둘러야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원刊·값8,000원)

■미인만들기 개성살리기 —盧永 著

성형외과 전문의인 盧永(77년 醫大卒)동문이 성형수술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사례별로

구성하여,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盧동문은 성형수술이란 여성의 각기 다른 개성을 강조하여미를 창조해내는 작업이라고 언급하고 이 책이 성형수술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불刊·값7,000원)



(정리=安興燮기자)

“현행 로마자 표기방식 바꾸자”

최근 충북대 金福文(51년 文理大入)교수가 「韓·日 로마字表記의 比較研究」(무역출판사刊)라는 저서를 통해 영어발음 기준의 모의발음부호법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모음이 5개(a, e, i, o, u)밖에 없는 일본어의 경우는 이태리 모음을 자국어 모음의 로마자 표기의 발음기준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모음이 21개나 되는 한글의 경우는 이태리어 모음표기만으로는 음

이다.

이에 따르면 ㅏ는 Ah, ㅑ는 Yah, ㅓ는 Ur, ㅕ는 Yur, ㅗ는 Oh, ㅛ는 Yoh, ㅜ는 Oo, ㅠ는 Yoo, ㅡ는 Uh, ㅣ는 Ee로 표기되며 현재 각기 다른 성씨 표기를 강(Gahng), 꺾(Gwahk), 김(Kim), 이/리(Yee/Ree), 박(Bahk), 방(Bahng), 윤(Yoon), 장(Jahng), 전(Jum), 정(Jumg), 조(Joh), 최(Chweh), 황(Hwahng)등으로 통일시킨안을 내놓았다. 흔히 하는대로 「최」를 「Choi」로, 「강」을



교육, 특히 발음에 관한 교육을 훨씬 더 능률적이며 쉽게 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金교수는 15년간 대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펴낸 金福文동문 발음부호 대신 일정한 소리값 지닌 로마자 사용

가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金교수의 핵심적인 주장은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만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소리값을 지니고 있는 로마자들을 발음부호 대신 사용하자는 것

「Kang Gang」으로 쓰면 외국인은 「초이」, 「깡, 갡」으로 읽는 것이 사실이다.

金교수가 개발창안한 표기법은 영어 고유의 철자와 발음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초등학교부터의 조기 영어교육과 맞아떨어져 영어

한무역진흥공사 직원으로 재외공관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글의 로마자 표기법 체제의 문제점을 절감, 외국인과의 교류하면서 실제로 쓸수 있는 로마자 표기법을 현장 체험을 통해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雙)



두산씨그램 마스터블랜더

李鍾玟부장

부드러운 위스키 개발에 성공

마스터블랜더 李鍾玟(80년 農大卒)부장. 두산씨그램의 李동문은 17년간이나 술의 향취를 맡으며 지내고 있는 운종은(?) 사람이다. 숙성통마다 술의 숙성도나 맛을 리기 마련이다. 이를 조금씩 다른 원액에 섞어 균일하게 배합하는 일이 바로 그의 몫이다.

李동문은 80년 OB에 입사, 품질관리를 하면서 술 감정을 터득하고, 90년부터 2년 동안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 헤리웃와트 공대에서 양조학 및 증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후 원저프 리미어를 개발해 국내 프리미엄급 위스키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세계주류 학계와 업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양조협회 정회원 자격을 국내에선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다.

『스카치위스키나 버번위스키는 맛이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위스키로 개발한 것이 원저입니다』

대학시절 막걸리를 즐기고 OB입사후 처음 품질관리를 할 때는 위스키를 맥주 마시듯 단번에 마셔 그 자리에서 꿈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던 李동문에게 술의 제조를 하면서도 음주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집에



서 술을 빚어 귀한 손님이 오면 접대하곤 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에 술을 쓴 것만 봐도 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지요. 술과 술자리를 귀하게 여겨 언행을 조심하고 혹여 추태를 부리게 되면 술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전통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주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와 문헌에 나타난 조상들의 음주에 대한 지혜를 모아 곧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두 아들이 자라서 바른 음주문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비디오나 홍보물을 통해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李동문.

李동문이 강조한 법화경의 한구절을 술자리에서 한 번씩 되뇌어봄이 어떨지. 「初則人呑酒, 中則酒呑人, 後則酒呑人」 (熙)

“동문 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 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理事:4월 4일~4월 10일·一般:4월 4일~4월 16일〉

이 사

◇人文大學

- ▲박종덕⑧부승정밀전무
- ▲김석태⑩한불종합금융차장

◇社會科學大學

- ▲조현래⑦변호사
- ▲최진환⑩공인회계사

◇家政大學

- ▲권경주⑧前배화여중교사
- ▲정하진⑩건국대교수
- ▲조영⑩방송대교수

◇看護大學

- ▲엄미란⑩목포성신看護장사

◇經營大學

- ▲김동석⑩한국물렉스이사
- ▲박명호⑩포철손익예산팀장

◇工科大學

- ▲강성안⑩한림공업대표이사
- ▲강홍섭⑩태광중양研상무
- ▲경세호⑦(주)가희대표이사
- ▲고영주⑩대검공안기획담당
- ▲고재웅⑩건국대대학원장
- ▲곽영필⑩도화종합기술공사
- ▲권순영⑩울산종합가스회장
- ▲김락성⑩한전CATV사장
- ▲김상연⑩(주)유플테크대표
- ▲김생빈⑩동국대교수

본회는 그동안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후배들의 장학금을 비롯해 교수연구비, 모교의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김석기⑩대경기계기술대표
- ▲김선구⑩한국수자원공사
- ▲김영남⑩대우전자사장
- ▲김윤규⑩현대건설부사장
- ▲김일두⑩코오롱ENG사장
- ▲김재선⑩前(주)삼호대표
- ▲김정만⑩효동개발대표이사
- ▲김정수⑦현대정공상무
- ▲김정웅⑩대우중공업고문
- ▲김정철⑩(주)정림건축회장
- ▲김종석⑩선아가스상사사장
- ▲김중환⑩효성중공업부사장
- ▲김진만⑩우정주재상사사장
- ▲김진의⑦서울대교수
- ▲김형전⑩남흥건설대표이사
- ▲김형진⑩창덕금속대표이사
- ▲김희재⑩태일송풍기대표
- ▲노준연⑩공항버스(주)상무
- ▲노준철⑦LG화학부사장

- ▲노창복⑩건설저온냉장대표
- ▲문정규⑩남흥건설(주)회장
- ▲민계식⑩현대중공업부사장
- ▲박덕상⑩선진ENG부회장
- ▲박덕철⑩화성프랜트대표
- ▲박동서⑩현대건설상무
- ▲박병철⑩경남금속전무
- ▲박상호⑦前(주)LG고문
- ▲박성규⑩대우통신(주)회장
- ▲박성훈⑩(주)가람대표이사
- ▲박승빈⑩현대석유(주)상무
- ▲박원근⑩前LG전선대표
- ▲박의식⑩환경동인건축대표
- ▲박종률⑩(주)유공가스대표
- ▲박중현⑦서울대교수
- ▲박찬모⑩포항공대교수
- ▲박찬순⑩강신산업대표이사
- ▲서정훈⑩동명공사대표이사
- ▲성기상⑩협성농산대표이사

- ▲성기웅⑩대림산업사장
- ▲성기초⑩충남도시가스
- ▲손해동⑩대림금속공업회장
- ▲송억영⑩도화기술공부회장
- ▲신동수⑩동명기술공단회장
- ▲신동식⑩한국해사기술회장
- ▲신현주⑩LG화학부사장
- ▲심이택⑩대한항공부사장
- ▲심정섭⑩서울대명예교수
- ▲심창생⑩한국전력전무
- ▲안철호⑩서울대명예교수
- ▲안호준⑩군자산업사장
- ▲양홍준⑩LG화학이사
- ▲우인성⑩한국피셔과학대표
- ▲원정수⑦인하대교수
- ▲원호녕⑩원기술(주)대표
- ▲유봉환⑩승실대교수
- ▲유현식⑩제일모직대표이사
- ▲윤병도⑩중앙대교수

- ▲윤병화⑩우방무역대표이사
- ▲윤순용⑩LG ENG부사장
- ▲윤인우⑩동양맥주전무
- ▲윤팔문⑩동흥공업사장
- ▲이공주⑩초현조경개발회장
- ▲이길범⑩유일건축이사
- ▲이덕선⑩前대전EXPO
- ▲이동춘⑩대명산업사장
- ▲이면우⑩서울대교수
- ▲이범창⑩기아자동차부회장
- ▲이성렬⑩前성균관대부총장
- ▲이승조⑦(주)코오롱상무
- ▲이윤환⑩해운대개발고문
- ▲이정호⑩LG석유화학대표
- ▲이종대⑩벽산강재(주)사장
- ▲이종성⑩(주)대우전무
- ▲이종호⑩삼호개발(주)대표
- ▲이종훈⑩성하지질(주)대표
- ▲이중홍⑩경방기계(주)대표
- ▲이철순⑦백률건축소장
- ▲이형도⑦삼성전기(주)대표
- ▲임병문⑩경향건설부사장
- ▲임병주⑩남경상사사장
- ▲임종태⑩태양섬유상사대표
- ▲임 회⑩(주)오창개발대표
- ▲장기욱⑩한국전력기술대표
- ▲장동욱⑩해외건설고문
- ▲장명수⑩전북대총장
- ▲장삼진⑩바이엘코리아(주)
- ▲장호남⑦KAIST학장
- ▲전영우⑩(주)대원대표이사
- ▲정동진⑦대림산업연구소장
- ▲정전기⑩쌍용제지대표
- ▲정순착⑩선경건설대표

▲정연세 57 한국선금회장
▲정하오 58 현대ENG대표
▲조필제 50 세양주택(주)회장
▲지 순 58 간삼종합건축대표
▲최상홍 58 한일기술협회장
▲최인재 57 협우(주)대표이사
▲최창영 69 고려아연부회장
▲한승업 63 서울대공대학장
▲한용호 62 대우건설부사장
▲허영섭 64 녹십자대표
▲허진 51 대한화약기술학회
▲홍성부 60 (주)신한회장
▲홍대선 65 한보철강공업사장
▲황문익 59 前LG기공상무

◇農科大學

▲이현수 64 삼양제넥스전무
▲김진희 65 (주)제일사료대표
▲이기명 67 경북대학교수
▲양종석 73 내부부기획관리실
▲이상무 71 농수산부기획관리
▲박대경 67 농진청작물시험장
▲고홍철 61 대한생명전무이사
▲곽영철 65 동아건설(주)사장
▲박재룡 66 백제ENG대표이사
▲고학균 64 서울대농생대학장
▲김동암 56 서울대학교수
▲이병하 60 前농협중앙회
▲김시경 58 진주산업대총장
▲김남용 67 낙농육우협회장
▲정영식 67 한불기술교역대표
▲김원세 61 현대금속(주)회장

◇文理科大學

▲김경환 68 (주)태경대표
▲권혁조 69 신세기이동통신
▲구태희 60 LG그룹고문
▲최각규 57 강원지사
▲표순승 68 건국대학교수
▲정중환 62 건설화학공업전무
▲하영식 58 경기대학교수
▲현승일 66 국민대총장
▲육세홍 70 국민銀양평동지점
▲정준호 62 국방대학원교수
▲김교은 64 농협전문대학장
▲이병재 64 대동브레이크대표
▲김정태 64 대한상의부회장
▲최병익 53 대한생명부회장
▲정효섭 65 도서출판다락원
▲강재륜 59 동국대학교수
▲김주필 67 동국대학교수
▲남중구 64 동아일보논설위원
▲홍영태 71 동우실크대표이사
▲박희주 53 매일유업사장
▲이정석 54 방송위원회위원
▲신효순 61 새한종합금융감사
▲이종규 60 쌍용정공대표이사
▲이병호 48 아태변호사협회장
▲현소환 61 연합통신사장
▲함홍근 51 이화여대명예교수
▲조성욱 56 인하대총장
▲양재현 51 前단국대부총장
▲이상욱 57 前외무부장관
▲박성철 57 前의왕중학교장
▲한만운 49 前인하대학교수
▲최준성 59 충남대학교수
▲김종구 62 건설방식기술원
▲강일규 57 한국렌탈회장
▲이종구 61 한국무역개발감사
▲방원혁 64 KBS연구원장
▲정세화 57 한국여성개발원장
▲박종규 61 한국특수선대표

▲김기주 59 한서대총장
▲김영구 62 한영주유소사장
▲허운옥 64 세무회계사사무소
▲현영원 54 현대상선상임고문
▲윤종혁 57 홍익대학교수

◇美術大學

▲박노수 52 예술원회원
▲정창섭 51 서울대명예교수

◇法科大學

▲김정득 61 (주)금성대표이사
▲이선우 65 대아·진안여객대표
▲서형석 59 (주)대우회장
▲강병호 66 (주)대우사장
▲김기돈 67 (주)범한대표
▲이인상 64 (주)선경유통대표
▲조지연 64 신한상호금고대표
▲이우영 64 (주)영화대표
▲한기태 64 (주)정양기획회장
▲조주순 69 타이거상사대표
▲박석규 69 (주)한양유통이사
▲양영 66 한진기획실이사
▲송영수 60 한진중공업대표
▲이철호 63 LG그룹전무이사
▲장수길 64 김&장법률사무소
▲양영준 77 김&장법률사무소
▲강신원 76 변호사
▲홍경용 49 경광상사대표
▲김학용 60 경남기업대표
▲양수일 66 경남銀서울지점장
▲박일룡 63 경찰청장
▲고왕석 61 변호사
▲김선옥 68 공정거래부위원장
▲강만수 69 관세청장
▲정기호 64 국회의원
▲전선기 64 기아특수강전무
▲김경철 68 변호사
▲김신태 62 변호사
▲김양일 65 변호사
▲김익하 64 변호사
▲김재철 61 변호사
▲김태조 68 변호사
▲이세복 65 나드리화장품
▲송재룡 62 농협여의도지점장
▲박인수 61 대검찰청총무부장
▲양동관 71 대구고법부장판사
▲김창홍 60 대구지검경주지청
▲김형선 62 대법관
▲박준서 64 대법관
▲한영광 67 대우건설전무
▲김동규 66 대한주택공사사장
▲이흥구 62 동원투자부사장
▲이영욱 66 변호사
▲임광수 66 문화체육부과장
▲문홍주 40 美헌법연구이사장
▲김현순 58 평통자문위원
▲박찬식 55 변호사
▲우영제 60 변호사
▲홍석조 75 법무부검찰2과장
▲한광수 69 법무연수원기획부
▲이원철 73 변호사
▲이창구 70 부산고법부장판사
▲정동욱 71 부산지검동부지청
▲배석필 62 한국어문화
▲김성산 58 사회복지법인부장
▲한명수 74 삼우통신공업전무
▲신동수 63 삼환상호금고대표
▲정정길 65 서울대행대원장
▲한명석 56 서울동방관광회장
▲김길중 65 민사지법부장판사
▲설동훈 51 변호사

▲양희영 56 세양운수대표이사
▲구자춘 58 세운산업(주)회장
▲최대용 59 세일정보통신사장
▲손영섭 79 변호사
▲손제희 62 변호사
▲송기방 63 변호사
▲정희준 61 송호장학회장
▲정기옥 60 송화가구판매대표
▲홍순표 67 수원권선구청장
▲신상규 72 수원지검강력부장
▲이흥기 72 수원지법성남지원
▲김태준 61 수출보험공사사장
▲홍진태 56 마포케이블TV
▲정태창 63 신일홍산(주)대표
▲강성재 64 국회의원
▲민병국 63 변호사
▲조택근 58 아주생명보험전무
▲여동영 64 변호사
▲박철근 59 영일화학대표이사
▲서종원 65 외환銀강서본부장
▲이서 65 외환銀봉천지점장
▲송영필 61 외환은행이사
▲조성운 64 외환부금융사장
▲신창호 45 우일문화사회장
▲정상학 60 변호사
▲유기선 64 유기선의원장
▲유길수 68 변호사
▲유순석 57 변호사
▲한승희 61 이진상사사장
▲이문재 65 변호사
▲이홍 66 변호사
▲임상현 63 변호사
▲임종선 61 변호사
▲임창원 68 변호사
▲봉중현 61 장은경제연구고문
▲장준호 77 변호사
▲오종남 75 재경원법무담당관
▲김재후 57 前승리기계제작소
▲서경석 71 LG회장실전무
▲손종석 64 前도시철도공사
▲유철호 66 前전경증권대표
▲신장순 51 前유정상사사장
▲하일부 61 변호사
▲이규오 47 前제지공업연합회
▲정극수 59 변호사
▲정세용 78 변호사
▲정영철 78 변호사
▲박대서 53 제일산업개발회장
▲고문승 63 제주전문대학교수
▲신달순 59 조흥파이낸스
▲김재해 65 주택산업연구원
▲최근선 58 죽장중고교장
▲박부찬 60 지방자치경영협회
▲김종국 69 진안통상대표이사
▲최명선 63 대검찰청차장감사
▲심우영 64 대통령행정수석
▲최선호 53 변호사
▲김선중 74 춘천지법부장판사
▲배상오 59 충남대학교수
▲한장희 65 태주공업대표이사
▲정해주 68 특허청장
▲곽창욱 62 변호사
▲김갑현 49 학교법인유신학원
▲김시형 62 한국산업은행총재
▲서광하 60 한국산업은행상무
▲이경우 67 석유개발공부사장
▲고재화 66 수출입銀법규부장
▲이창희 72 한국銀법규과장
▲김원태 62 한국銀이사
▲이인표 58 한국이동통신감사
▲김응용 64 한전서광주지점장
▲유희렬 63 한국타이어제조

▲최규영 60 해운조합이사장
▲김유 55 한미리스부사장
▲김두배 57 한불종합금융대표
▲지홍식 64 한승철강대표이사
▲윤태남 68 한양공영이사
▲안종윤 55 한양대학교수
▲강인현 62 한양증권상임고문
▲김용철 50 변호사
▲김현삼 64 한일銀제주지점장
▲김진호 61 한전남인천지점장
▲이재화 58 헌법재판소재판관
▲문익삼 62 현대상선부사장
▲정정일 63 현대종합상사
▲김정국 65 현대중공업대표
▲유홍종 64 현대할부금융대표
▲안동일 63 변호사
▲염태환 68 환은리스안양부장
▲황철수 65 변호사

◇師範大學

▲최용준 65 (주)천재교육대표
▲강규석 62 강릉대총장
▲박찬도 62 국립교육평가원
▲전용근 78 국방과학연구소
▲이은백 49 국어교육연구소장
▲박종달 49 국제예식장대표
▲고준식 55 당국중학교장
▲신상철 73 한샘사장
▲서용용 69 국회의원
▲강하구 72 동아일보기획위원
▲박종원 67 부천고교장
▲오경환 72 경상대학교수
▲호문룡 60 수원대학교수
▲이봉준 58 아현중학교장
▲권상철 55 안양專재단이사장
▲김영근 63 애경화학대표이사
▲이종락 62 양천중학교장
▲손진석 55 오아시스레코드
▲박영자 50 前현중학교장
▲박화서 44 前서서초등학교장
▲박한식 53 前한국교원대학
▲지동수 60 정신여자고교장
▲정연우 49 정INT사장
▲조용락 56 변호사
▲김영찬 56 포항여고교장
▲유광현 48 춘강학원이사장
▲양금석 58 한국교회목사
▲이찬 51 한국문화지리학회
▲문병관 54 한염해운(주)회장

◇商科大學

▲김성규 63 경남모직대표이사
▲이춘무 64 (주)고제회장
▲이일쇄 65 대우건설대표이사
▲서병태 68 동아전기대표이사
▲조석 50 삼양제넥스고문
▲전병은 74 세풍물산사장
▲김항덕 65 (주)유공부회장
▲우분형 65 가호상사사장
▲이규성 63 건양대학교수
▲이승균 60 경남은행상무
▲허만거 68 경남종합금융사장
▲구제성 64 경인기계대표이사
▲김지정 67 고려당대표
▲황동규 72 고려상사부사장
▲이만수 62 교보생명부사장
▲강신돈 73 국민대학교수
▲이기용 63 국민신용카드대표
▲김영태 66 국민銀무교동지점
▲오세영 66 국제통운상무이사
▲신희철 63 금강제화부회장
▲백구현 61 기초과학기술원

▲심상국 63 남경개발회장
▲이태환 62 내외반도체부사장
▲이창복 65 농협신촌지점장
▲서원호 65 농협인천지회회장
▲계준혁 60 뉴서울사장
▲김영식 61 다림실업대표이사
▲장종의 64 대구리스금융
▲원호출 56 대구투자금융사장
▲강수현 62 대동벽지대표이사
▲허홍 61 대동은행장
▲장정길 66 대우증권이사
▲구정희 61 대일기계공업회장
▲김중대 41 대전피혁공업회장
▲박근준 65 대한제당부회장
▲김광선 61 동구통상이사
▲양성진 57 동국무역부사장
▲김시왕 63 동양투자신탁상무
▲박정식 63 동일레니온사장
▲김홍구 70 두산건설전무
▲김용세 57 롯데월드사장
▲이병식 61 공인회계사
▲이순학 68 삼성증권전무
▲허남각 60 삼양통상회장
▲황창연 62 공인회계사
▲한병무 65 삼화화료사장
▲박옥근 74 삼환기업이사
▲김영규 59 서통상대표
▲권혁태 57 서울가든사장
▲조순 49 서울시장
▲김영석 60 서은상호금고회장
▲장성정 65 석유개발공사사장
▲정희영 65 선진종합대표
▲김중서 63 세보기계대표
▲윤하균 61 수산스타대표
▲이태형 63 수자원공사장
▲최충식 62 숭실대학교수
▲황재철 65 신도시시스템대표
▲김영일 65 신봉기업대표
▲권영수 67 신한국주유소사장
▲차형동 61 쌍용그룹연수원장
▲서주성 47 연세종합회화이사장
▲박화순 77 영월세무서장
▲이영우 62 외환투자자문대표
▲허병하 62 우신시스템사장
▲김광진 60 울산투자금융감사
▲이원기 55 세무회계사무소장
▲권오균 53 前국민대학교수
▲이상철 60 前국민銀연합회장
▲홍면후 59 前대우중공업고문
▲김홍은 64 전방(주)대표이사
▲강영철 59 前삼천리기계사장
▲박세만 49 前세양공업사장
▲전정구 56 변호사
▲하진오 64 제일투자신탁사장
▲위성복 64 조흥은행상무이사
▲구영치 66 조흥은행이사
▲이성렬 74 총무처공보관
▲이상학 63 텍스타일대표
▲김선영 57 토미제화대표
▲최명재 48 파스퇴르유업회장
▲박영조 65 HOYA LENS
▲오창규 65 한국IBM대표
▲성하현 63 한국국토개발사장
▲김봉규 62 한국기업리스대표
▲백운생 66 한국산업리스감사
▲박건영 68 산업銀강남지점
▲이광수 54 산업銀이사장
▲조원구 68 한국아스텐ENG
▲김수필 66 한국이동통신전무
▲한국중 67 한전외자처장
▲임재수 55 한신경제연구소장
▲이근희 56 한양대학교수

▲강보원④한의금용부사장
▲김석규⑦한일리스대표
▲박근식④한일은행이사
▲정용익③한일은행이사
▲신동혁③한일은행전무
▲전창수⑥한진종합건설대표
▲박원배④한화화학부회장
▲유영일⑦해태상사부회장
▲신정철⑦해태전자대표
▲서재진⑥현대중금부사장
▲정상진⑦현양상사회장
▲이계욱⑦호유에너지전무
▲이창웅⑥화남상사사장
▲최해은⑥화인산업회장
▲이덕훈⑦농농종묘대표

◇獸醫科大學

▲조명래⑦갈촌동물병원장
▲김호훈⑥국립보건원과장
▲이재철⑤세왕양조대표

◇藥學大學

▲김윤종⑦마성상사대표
▲문경운⑤경일약국
▲박종훈⑦동국제약부회장
▲박동재⑧동민약국
▲이만재⑥민원약국
▲최인영⑤봉민약국
▲김종국⑥서울대교수
▲이기연⑥순창지업사대표
▲박동순④신암우리약국
▲김상렬④한국컴퓨터회장
▲남창우⑥영림상사대표
▲지상구⑤우진양행사장
▲전용동⑦유중당약국
▲홍순억⑤유한화학대표
▲최현식④중외제약부사장
▲이강추⑤신약개발연구조참
▲이계관⑦한인제약전무
▲오연준⑥효진물산대표

◇音樂大學

▲김명주⑦
▲장혜경⑥건국대교수
▲신수정③경원대학장
▲이종국⑤교원대교수
▲서우석④서울대교수

◇醫科大學

▲임종윤⑦강동성심병원
▲강내열⑥간안과의원장
▲이광호⑦경상대학장
▲김국기⑦경희대교수
▲배대경⑦경희대교수
▲이성준⑥계명대교수
▲고영우④산부인과의원장
▲윤준식⑤괴산의료원장
▲김주일④금촌의원장
▲김관수⑦산부인과의원장
▲김병학⑦내과의원장
▲유영철⑥남산의원장
▲손근찬⑤단대부속병원
▲김건렬⑤단국대학장
▲손기섭⑦대전중앙병원장
▲지삼봉⑥대혜의원장
▲정원석⑤동서울병원과장
▲조철래⑤동아의원장
▲문한규⑦동의의료원
▲문성무⑥이비인후과의원장
▲박동건⑦신경정신과의원장
▲박대관⑥박의과의원장
▲박원재⑥소아과의원장

▲박조렬⑤신경정신과의원장
▲박영관④부천세종병원장
▲김원경④삼양대화의원장
▲이정상⑥서울대교수
▲김용락⑥서울대교수
▲박철규⑦서울대교수
▲최 용⑥서울대교수
▲박귀원⑦서울대교수
▲장봉린⑥서울대교수
▲정문상⑦서울대교수
▲조광현⑦서울대교수
▲은희철⑦서울대교수
▲조두영⑥서울대교수
▲박용현⑥서울대교수
▲이순형⑥서울대의대학장
▲백만기⑦서울대명예교수
▲우종인⑦서울대교수
▲유병훈⑦중앙대교수
▲최창욱⑥순천향대학병원
▲지영일⑥신일병원장
▲신현정⑥내과의원장
▲우동영⑥우동영의원장
▲이진오⑥원자력병원장
▲이용국⑥내과의원장
▲이종만⑥소아과의원장
▲이종찬⑥외과의원장
▲정세우⑤前광주인하의원장
▲이문기⑤前울산해성병원
▲이종표⑤제일의원장
▲김정식⑦제천서울병원
▲조영희⑥조신경외과의원장
▲주영식⑦이비인후과의원장
▲황성남⑦중앙대교수
▲김명호⑦단국대교수
▲최경진⑦비노기과의원장
▲김병찬⑥한라병원장

◇齒科大學

▲강근수⑦치과의원장
▲강현규⑥치과의원장
▲성재현⑦경북대교수
▲손한기⑦고려병원치과과장
▲김기혁⑥치과의원장
▲김봉호⑥치과의원장
▲김성룡④치과의원장
▲김세동⑦치과의원장
▲김소현⑥치과의원장
▲김현구⑥남문치과의원장
▲정경수⑥동심치과의원장
▲박석주⑧치과의원장
▲박용호⑧치과의원장
▲백승호⑤치과의원장
▲성훈경⑤성치과의원장
▲김종철⑥세종치과의원장
▲윤창근⑥시립보라매병원
▲조성환⑥신반포치과의원장
▲신현철⑧치과의원장
▲안호승⑥치과의원장
▲임동욱⑦안암치과의원장
▲양정강⑥치과의원장
▲엄태섭⑥엄치과의원장
▲윤훈용⑦윤치과의원장
▲이경모⑥치과의원장
▲이준섭⑤이치과의원장
▲이승부⑥이태원치과의원장
▲강효식⑥인제대교수
▲김윤영⑥자혜치과의원장
▲정소영⑥치과의원장
▲정건용⑦정치과의원장
▲박주호⑥제일치과의원장
▲조사현⑥치과의원장
▲민병덕⑦정산치과의원장

▲최승은⑦치과의원장
▲최희섭⑤최신치과의원장
▲한국영⑤치과의원장
▲한성훈⑥치과의원장
▲주낙림⑥한일치과의원장
▲황오현⑥치과의원장

◇大學院

▲백 철⑦동양라이닝사장
▲남덕우⑤산학협동재단회장
▲이수곤⑥전남대교수

◇經營大學院

▲김임식⑦동의대재단이사장
▲신길수⑥명지대교수
▲유민철⑦고려여행사대표

◇教育大學院

▲김병두⑥강원도교육감

◇保健大學院

▲김수철⑦성형외과의원장
▲이선자⑦서울대교수
▲우세홍⑥서울보건전문대
▲김영숙⑥성바오로병원과장
▲김남주⑥잠실한의원장

◇司法大學院

▲김기수⑥검찰총장
▲이원성⑦대구고검장
▲오복동⑥변호사
▲이홍균⑥변호사

◇新聞大學院

▲이근수⑥소호컨트리클럽
▲김기도⑦국회의원
▲이준우⑦조선일보편집국장

◇行政大學院

▲이준우⑦국제경영연구소장
▲김번웅⑦동국대교수
▲노석호⑦서울통신기술대표
▲배양일⑦참모차장
▲주병덕⑦충북도지사
▲이효계⑥토지개발공사이사장
▲정경모⑦해외선박회장

◇環境大學院

▲권경구⑦도화종합기술공사
▲이관석⑦前농촌진흥청장
▲강길부④중앙토지수용소

일 반

◇人文大學

▲강돈구⑦ ▲강영혜⑦
▲강인자⑥ ▲곽재성⑥
▲구영모⑥ ▲김석희⑦
▲김영민⑥ ▲김용태⑦
▲변성수⑥ ▲변원일⑦
▲승미영⑦ ▲우석균⑥
▲유정철⑥ ▲유 진⑥
▲이배홍⑥ ▲이순동⑦
▲이유경⑥ ▲이정화⑥
▲이한목⑦ ▲장낙도⑥
▲조해영⑥ ▲추희엽⑥
▲홍혜경⑥

◇社會科學大學

▲강주홍⑥ ▲김광덕⑥
▲김광진⑥ ▲김병준⑥

▲김석구⑥ ▲김석한⑦
▲김영호⑥ ▲김이환⑦
▲김재현⑥ ▲김준하⑥
▲김태식⑥ ▲김태호⑥
▲김태환⑥ ▲김홍수⑥
▲나운호⑥ ▲문승현⑥
▲박경옥⑥ ▲박미영⑥
▲박성민⑥ ▲박완신⑦
▲박원재⑥ ▲박주선⑥
▲서덕규⑥ ▲손희배⑥
▲송상민⑥ ▲신준상⑦
▲신희창⑦ ▲안병용⑥
▲어수선⑥ ▲엄형섭⑦
▲유두선⑥ ▲이민호⑥
▲이성표⑥ ▲이재기⑦
▲이종현⑦ ▲이준우⑥
▲전봉운⑥ ▲전홍찬⑥
▲정동중⑥ ▲정우훈⑥
▲정태석⑦ ▲조주연⑥
▲조한욱⑥ ▲조현철⑥
▲최계영⑥ ▲최영환⑥
▲한창호⑥ ▲한대원⑥
▲홍이석⑥

◇自然科學大學

▲강봉주⑥ ▲김건우⑥
▲정선희⑥ ▲조유현⑥
▲정동근⑥ ▲김홍윤⑥
▲장종만⑦ ▲임하나⑥
▲최형규⑥ ▲허영덕⑦
▲홍경환⑥ ▲이찬서⑥
▲이한형⑥ ▲장근일⑥
▲박진호⑥ ▲김주영⑥
▲이상철⑥ ▲송대엽⑥
▲한창우⑦ ▲박영아⑥
▲박경범⑥ ▲조관호⑦
▲문희록⑦ ▲양원호⑥
▲이창복⑦ ▲방난희⑥
▲이지희⑥ ▲김영안⑦
▲주창경⑥ ▲임인성⑥
▲윤태석⑦ ▲최성찬⑥

◇家政大學

▲김성은⑥ ▲김성희⑦
▲박관정⑥ ▲신은철⑦
▲이미영⑥ ▲이혜숙⑦
▲정현수⑦ ▲임은순⑥
▲황혜신⑥ ▲조혜경⑦

◇看護大學

▲박은선⑥

◇經營大學

▲권성휘⑥ ▲권태근⑥
▲김영권⑥ ▲김영진⑥
▲김종환⑥ ▲김태오⑦
▲남기태⑦ ▲노상규⑥
▲박용립⑦ ▲박진성⑥
▲서석형⑥ ▲성태호⑥
▲신용삼⑦ ▲오창호⑥
▲윤석주⑥ ▲은범수⑥
▲이정원⑥ ▲이준호⑥
▲이희준⑦ ▲장영준⑥
▲장 욱⑦ ▲장창호⑥
▲최병두⑦

◇工科大學

▲강경호⑥ ▲강승목⑥ ▲신동효⑦ ▲신승교⑥
▲강춘식⑥ ▲강태갑⑥ ▲신원기⑦ ▲신원용⑥
▲강태영⑥ ▲강태호⑦ ▲신일진⑦ ▲신중석⑥
▲강행언⑥ ▲강호문⑦ ▲신치재⑥ ▲신한교⑥
▲고광렬⑥ ▲고병욱⑥ ▲신형순⑥ ▲심수보⑥
▲고충준⑥ ▲곽광우⑥ ▲심일보⑦ ▲심홍주⑥
▲곽순섭⑦ ▲곽순태⑦ ▲안세훈⑥ ▲안영룡⑥
▲구경현⑥ ▲권봉일⑦ ▲안 인⑦ ▲안창섭⑥
▲권수원⑦ ▲권순식⑥ ▲양근수⑥ ▲어양담⑥
▲권영택⑥ ▲김 갑⑥ ▲오경수⑥ ▲오무강⑥
▲김건호⑥ ▲김경덕⑥ ▲오세기⑥ ▲오세환⑥
▲김경민⑦ ▲김관형⑥ ▲오양근⑥ ▲오양섭⑥
▲김광일⑥ ▲김광택⑥ ▲오인택⑥ ▲우효섭⑥
▲김국호⑥ ▲김기욱⑥ ▲유기중⑥ ▲유복모⑥
▲김기현⑥ ▲김기현⑥ ▲유상조⑥ ▲유선경⑥
▲김덕중⑦ ▲김덕초⑥ ▲유용하⑥ ▲유한근⑥
▲김도수⑦ ▲김도현⑦ ▲유호섭⑥ ▲유홍렬⑥
▲김동구⑦ ▲김동권⑥ ▲윤만중⑥ ▲윤기태⑦
▲김동길⑥ ▲김동주⑦ ▲윤만중⑥ ▲윤 문⑥
▲김동진⑦ ▲김동훈⑥ ▲윤석중⑦ ▲윤수원⑥
▲김두훈⑥ ▲김무조⑥ ▲윤우석⑥ ▲윤영수⑥
▲김문경⑦ ▲김병국⑦ ▲윤재홍⑥ ▲윤정목⑥
▲김병천⑦ ▲김봉렬⑥ ▲윤정호⑦ ▲윤종규⑥
▲김성태⑦ ▲김성호⑦ ▲윤주영⑥ ▲윤지규⑥
▲김수광⑥ ▲김수남⑥ ▲이건영⑥ ▲이경배⑥
▲김 순⑦ ▲김신태⑥ ▲이경보⑥ ▲이경원⑥
▲김억조⑦ ▲김영국⑥ ▲이경태⑥ ▲이경훈⑥
▲김영길⑥ ▲김영식⑦ ▲이광성⑦ ▲이광원⑥
▲김영웅⑦ ▲김영운⑥ ▲이권섭⑦ ▲이귀로⑥
▲김영인⑦ ▲김영철⑥ ▲이규생⑥ ▲이근명⑥
▲김영춘⑥ ▲김영환⑥ ▲이근수⑥ ▲이기완⑥
▲김영훈⑦ ▲김 원⑥ ▲이남규⑥ ▲이덕준⑥
▲김용세⑥ ▲김원태⑥ ▲이두원⑥ ▲이명학⑦
▲김응건⑥ ▲김응수⑥ ▲이무열⑦ ▲이문희⑥
▲김인근⑥ ▲김정건⑦ ▲이민규⑥ ▲이박일⑦
▲김정근⑥ ▲김정욱⑥ ▲이병무⑥ ▲이병철⑥
▲김정환⑥ ▲김제욱⑦ ▲이보호⑥ ▲이부민⑥
▲김종술⑦ ▲김종욱⑦ ▲이상식⑥ ▲이상우⑥
▲김종환⑦ ▲김종호⑥ ▲이상훈⑦ ▲이상희⑥
▲김준식⑥ ▲김준호⑦ ▲이성원⑥ ▲이성태⑦
▲김진규⑥ ▲김진근⑥ ▲이성홍⑦ ▲이성환⑦
▲김창경⑥ ▲김창희⑥ ▲이세중⑥ ▲이세혁⑦
▲김채식⑥ ▲김채원⑦ ▲이수원⑥ ▲이수훈⑥
▲김대경⑦ ▲김한섭⑦ ▲이승일⑥ ▲이승준⑥
▲김현우⑥ ▲김현진⑥ ▲이양걸⑥ ▲이영길⑥
▲김형모⑥ ▲김호용⑦ ▲이용각⑥ ▲이용식⑦
▲남상원⑥ ▲나덕주⑦ ▲이우길⑥ ▲이원도⑥
▲노승택⑥ ▲노재선⑥ ▲이은우⑥ ▲이의남⑥
▲류춘희⑥ ▲마춘경⑥ ▲이익용⑥ ▲이재욱⑥
▲문수길⑦ ▲문영기⑦ ▲이재훈⑦ ▲이정구⑥
▲문한규⑥ ▲박 강⑥ ▲이정구⑥ ▲이정국⑥
▲박경채⑥ ▲박노상⑥ ▲이정상⑦ ▲이종락⑦
▲박달수⑦ ▲박동준⑦ ▲이종성⑥ ▲이종수⑥
▲박동훈⑦ ▲박두화⑥ ▲이종웅⑥ ▲이주성⑥
▲박상구⑦ ▲박상표⑥ ▲이주익⑥ ▲이준상⑦
▲박석준⑥ ▲박수안⑦ ▲이준환⑥ ▲이준희⑥
▲박승균⑥ ▲박신지⑥ ▲이창규⑥ ▲이철신⑥
▲박인규⑦ ▲박종규⑦ ▲이풍기⑥ ▲이해수⑥
▲박종태⑥ ▲박진남⑥ ▲이형재⑦ ▲이희달⑦
▲박찬용⑦ ▲박창규⑦ ▲이희영⑦ ▲이희일⑥
▲박태권⑥ ▲박희명⑥ ▲이희환⑦ ▲임동조⑦
▲백남성⑥ ▲변일균⑥ ▲이희환⑦ ▲임상진⑦
▲서동균⑥ ▲서동운⑥ ▲임복규⑥ ▲임재용⑥
▲서동호⑥ ▲서완석⑥ ▲임창우⑦ ▲임철웅⑦
▲서필수⑦ ▲선석문⑦ ▲임태원⑥ ▲임학규⑥
▲선우현범⑦ ▲설원희⑥ ▲임홍재⑦ ▲임효빈⑥
▲설학인⑦ ▲성민제⑥ ▲장경환⑦ ▲장래혁⑥
▲송민구④ ▲송수영⑥ ▲장석규⑦ ▲장석주⑥
▲송신현⑥ ▲송태영⑥ ▲장성양⑥ ▲장승룡⑥
▲송현석⑥ ▲신기조④

▲장옥룡56 ▲장용균67 ▲장현갑73 ▲전동완60 ▲정광옥60 ▲정병하76 ▲정연훈70 ▲정익주86 ▲정재구46 ▲정종대63 ▲정진삼65 ▲정충기83 ▲정 훈57 ▲조영주78 ▲조종삼58 ▲조 진73 ▲주수일65 ▲지규억62 ▲차원갑53 ▲채경선67 ▲천남중69 ▲최경준69 ▲최기언78 ▲최동규70 ▲최병두72 ▲최병주57 ▲최성용73 ▲최영택72 ▲최원규62 ▲최인영65 ▲최진희79 ▲최태희69 ▲하경진78 ▲한두현63 ▲한승국83 ▲한철중59 ▲허무영88 ▲허흥기89 ▲홍선표57 ▲홍순채71 ▲홍해남77 ▲황선욱55 ▲황우형67 ▲황 훈88

◇農科大學

▲강광희63 ▲강우상71 ▲강형모66 ▲고장달59 ▲고홍석76 ▲김경수55 ▲김나섭59 ▲김동익56 ▲김성한50 ▲김영기58 ▲김영종64 ▲김영환64 ▲김원숙47 ▲김재권52 ▲김재철81 ▲김정기61 ▲김정수64 ▲김정혜65 ▲김진근61 ▲김진목59 ▲김창혁74 ▲김철영54 ▲김홍렬54 ▲남상운84 ▲문장달62 ▲박남중59 ▲박우철74 ▲박응봉54 ▲강대건61 ▲강창희74 ▲고경일65 ▲고현우75 ▲곽원석75 ▲김권수55 ▲김대우89 ▲김동태66 ▲김영근68 ▲김영욱59 ▲김영주75 ▲김원국88 ▲김윤태60 ▲김재원80 ▲김재학57 ▲김정목65 ▲김정표75 ▲김종성60 ▲김진구58 ▲김진욱56 ▲김철곤66 ▲김판식80 ▲김훈동69 ▲류기승63 ▲박경석56 ▲박옥임74 ▲박원규64 ▲박재현67

▲박준규57 ▲박태식50 ▲백정기72 ▲서병윤73 ▲서정근65 ▲성배영66 ▲손낙률62 ▲송기수77 ▲송인석60 ▲신길섭78 ▲신영무65 ▲심성섭58 ▲안건용56 ▲안희철72 ▲오근배60 ▲우건석59 ▲원청언69 ▲유근학60 ▲유달영36 ▲유신상60 ▲유이상72 ▲유지풍59 ▲윤중식68 ▲이강남65 ▲이경용57 ▲이관호68 ▲이근필62 ▲이병래66 ▲이상직53 ▲이성호76 ▲이영환56 ▲이인근64 ▲이재형70 ▲이종진79 ▲이철곤76 ▲이택규67 ▲이한강73 ▲이흥기71 ▲임수호63 ▲전승규56 ▲전용식65 ▲정병기68 ▲정성봉67 ▲정을규65 ▲정태수69 ▲조성지56 ▲조수형63 ▲조용섭58 ▲주홍선66 ▲최동룡74 ▲최민후59 ▲최양부68 ▲최정식79 ▲한중희61 ▲허유만71 ▲홍동의89 ▲홍태식61 ▲황진숙69 ▲박진구64 ▲박희창55 ▲백창영73 ▲서인식66 ▲성명제72 ▲소만호75 ▲손환규68 ▲송원중88 ▲송종관56 ▲신서균64 ▲심상현49 ▲심용섭74 ▲안장환64 ▲양석홍62 ▲오윤진60 ▲오현준61 ▲우성식86 ▲유광일73 ▲유기형58 ▲유병세55 ▲유영준73 ▲유인천57 ▲유태희61 ▲윤충섭61 ▲이강세62 ▲이계은60 ▲이광선63 ▲이덕원74 ▲이부경54 ▲이석우63 ▲이승규33 ▲이원규63 ▲이장섭57 ▲이재홍58 ▲이종화40 ▲이창복43 ▲이태중63 ▲이풍우61 ▲이해수65 ▲임봉호40 ▲임정부65 ▲전영수66 ▲전현기71 ▲정선용63 ▲정용복55 ▲정지윤65 ▲조병춘63 ▲조세환49 ▲조외현89 ▲조치흠78 ▲최낙현65 ▲최무재59 ▲최봉영82 ▲최연홍63 ▲최희석64 ▲한춘연56 ▲현호언57 ▲홍순억48 ▲황영자63 ▲강신규56 ▲강한영51 ▲고광희71 ▲고정택66 ▲공대식60 ▲권경환52 ▲권영래71 ▲권인혁60 ▲김갑용73 ▲김경준62

◇文理科大學

▲강석호70 ▲강필중63 ▲고광삼72 ▲고상빈57 ▲고태우67 ▲공영일61 ▲권병두72 ▲권오양72 ▲권혁방72 ▲김경수53 ▲강신규56 ▲강한영51 ▲고광희71 ▲고정택66 ▲공대식60 ▲권경환52 ▲권영래71 ▲권인혁60 ▲김갑용73 ▲김경준62

▲김규완60 ▲김남진65 ▲김동학57 ▲김무창61 ▲김병옥58 ▲김상복63 ▲김세기70 ▲김영덕61 ▲김영식68 ▲김영호74 ▲김용삼65 ▲김용수63 ▲김용진63 ▲김인자63 ▲김재민71 ▲김정식66 ▲김주철67 ▲김진석65 ▲김충섭47 ▲김태영62 ▲김현석69 ▲김 훈66 ▲김흥기57 ▲남기홍74 ▲문 룡58 ▲박대일69 ▲박성주74 ▲박완규67 ▲박용호53 ▲박일성61 ▲박재만58 ▲박중영75 ▲방성룡72 ▲백낙운60 ▲백재현48 ▲서철원65 ▲손영희57 ▲손현래64 ▲송규정67 ▲송병희55 ▲송재근65 ▲심상철62 ▲안계춘61 ▲안승원75 ▲안현화56 ▲양갑석63 ▲엄규진48 ▲오근영65 ▲오현우50 ▲유광식62 ▲유윤선57 ▲유진당58 ▲유창우59 ▲유의웅68 ▲윤정목72 ▲이광렬75 ▲이광수55 ▲이규성63 ▲이달수48 ▲이도영60 ▲이동익60 ▲이명규47 ▲이명준68 ▲이사계63 ▲이수우52 ▲이영서75 ▲이영우70 ▲이원재65 ▲이인건63 ▲이재현65 ▲이정숙57 ▲김기봉58 ▲김덕룡56 ▲김명현65 ▲김문규61 ▲김상균70 ▲김상철69 ▲김순민60 ▲김영수63 ▲김영철70 ▲김용년58 ▲김용성68 ▲김용우65 ▲김은호57 ▲김일수72 ▲김재원58 ▲김정택60 ▲김주태58 ▲김철수61 ▲김태수71 ▲김현배64 ▲김호경64 ▲김훈수49 ▲남궁건66 ▲남상규71 ▲문영순55 ▲박도일54 ▲박순국63 ▲박용오70 ▲박원우54 ▲박재권75 ▲박종수71 ▲박준규48 ▲박춘호59 ▲방준영67 ▲백상기70 ▲서정욱64 ▲소형선77 ▲손정규65 ▲송덕진71 ▲송상용62 ▲신중식66 ▲심 혁71 ▲안국전72 ▲안재호61 ▲안화영54 ▲양이훈74 ▲엄기홍65 ▲오생근70 ▲우종택58 ▲유순애74 ▲유익형50 ▲윤생남64 ▲윤일병58 ▲이계익61 ▲이광수55 ▲이교선62 ▲이근남72 ▲이달용70 ▲이동욱69 ▲이두현74 ▲이명석66 ▲이병형71 ▲이성규72 ▲이영래64 ▲이영석50 ▲이원구60 ▲이윤상72 ▲이재술61 ▲이정명66 ▲이정주59

▲이정호71 ▲이종한69 ▲이통권72 ▲이해창67 ▲이형수67 ▲이호석74 ▲임성기66 ▲임형두61 ▲장동식55 ▲장병인73 ▲장윤걸48 ▲장정행67 ▲장종하66 ▲전두하52 ▲전재근63 ▲정복근64 ▲정종운65 ▲정철현62 ▲정태훈53 ▲정해웅67 ▲조병태54 ▲주형근68 ▲차홍봉69 ▲최명욱73 ▲최진진62 ▲최옥식59 ▲최종만63 ▲하이영53 ▲한기욱58 ▲허영욱63 ▲홍승재71 ▲홍종웅72 ▲황우승60 ▲황필래56 ▲이종진70 ▲이천복61 ▲이화래56 ▲이항렬65 ▲이혜구31 ▲이희열71 ▲임창근63 ▲임 흥72 ▲장문영65 ▲장석환66 ▲장인식65 ▲장종표60 ▲전광현61 ▲전숙희75 ▲전종갑68 ▲정연채73 ▲정창렬63 ▲정태식61 ▲정해수47 ▲조규환57 ▲조홍래67 ▲진건정67 ▲채규희47 ▲최문석67 ▲최연상60 ▲최인승63 ▲최태호70 ▲하인경70 ▲한철순62 ▲홍경화58 ▲홍종만59 ▲황영애70 ▲황인길62

◇美術大學

▲강영봉61 ▲권달술66 ▲권영숙61 ▲김미령76 ▲김영길77 ▲김중학62 ▲김창자65 ▲김 현78 ▲노정민89 ▲박미화79 ▲박지선83 ▲박향숙62 ▲백영자69 ▲석성봉59 ▲신완식77 ▲안종문65 ▲엄태정64 ▲유가매62 ▲이귀향56 ▲이성은68 ▲이은심82 ▲이춘만62 ▲조재구64 ▲최성숙68 ▲권달술66 ▲김경수63 ▲김소선67 ▲김영희69 ▲김지열60 ▲김충경58 ▲나경문56 ▲민병목59 ▲박연도60 ▲박항률74 ▲백경찬65 ▲서용선79 ▲신광석68 ▲안동숙48 ▲양창보62 ▲우계숙76 ▲윤형실58 ▲이설자65 ▲이우범67 ▲이종수63 ▲이혜인68 ▲최병상61

◇法科大學

▲강동호56 ▲강성태58 ▲강태형61 ▲계창협40 ▲곽현수76 ▲권영길76 ▲김경희65 ▲김규림73 ▲김기봉56 ▲김동찬81 ▲김명수57 ▲강명식65 ▲강제웅62 ▲강형중89 ▲곽무근78 ▲권연상63 ▲권종철61 ▲김광현58 ▲김근태67 ▲김대영78 ▲김동철61 ▲김배렬69

▲김백영65 ▲김봉길51 ▲김 석76 ▲김성훈65 ▲김시현83 ▲김영상59 ▲김영일66 ▲김용준59 ▲김월택65 ▲김종윤76 ▲김주호59 ▲김진기71 ▲김철진58 ▲김태규49 ▲김평우67 ▲김현영67 ▲김형표60 ▲김활민50 ▲김 훈88 ▲남계호58 ▲노재관81 ▲도재성70 ▲류시열61 ▲문장운76 ▲박광우81 ▲박노문70 ▲박무용68 ▲박성원65 ▲박성철79 ▲박지영41 ▲반성우59 ▲방인걸69 ▲백창수60 ▲변재승64 ▲서규영83 ▲서석희80 ▲서희석75 ▲성봉경62 ▲손홍균59 ▲송배원79 ▲송철식73 ▲신경식86 ▲신배식81 ▲안병만64 ▲안병찬65 ▲안승국60 ▲안철환57 ▲양승천80 ▲엄기엽62 ▲오동수43 ▲오석준84 ▲오영권73 ▲우성만80 ▲우의형70 ▲유기준62 ▲유시동61 ▲유재방42 ▲유태현64 ▲윤윤수80 ▲윤재식64 ▲이건형65 ▲이국운69 ▲이대순57 ▲이대영71 ▲이민찬61 ▲이상도79 ▲이상민64 ▲이성범74 ▲이성호80 ▲이승태72 ▲김병규36 ▲김복지54 ▲김성원50 ▲김수동68 ▲김영배70 ▲김영욱76 ▲김영필57 ▲김원주57 ▲김윤철52 ▲김종인75 ▲김중연57 ▲김진모61 ▲김춘방59 ▲김태정64 ▲김필곤65 ▲김형철63 ▲김호룡52 ▲김효성65 ▲김희관86 ▲남 승64 ▲노홍희67 ▲동상홍68 ▲목진수63 ▲문해성63 ▲박국홍65 ▲박명석66 ▲박성준69 ▲박장우70 ▲박태훈70 ▲방극성78 ▲배병우57 ▲백창훈80 ▲봉 옥88 ▲서돈양60 ▲서재국64 ▲석의수58 ▲손동원64 ▲송달용82 ▲송인보61 ▲신 건63 ▲신교준66 ▲신 신69 ▲심재갑56 ▲안병우70 ▲안병한61 ▲안영운67 ▲안응선62 ▲양승국81 ▲양재식89 ▲엄병운64 ▲오상태60 ▲오석환55 ▲오형환69 ▲우양구74 ▲원철희62 ▲유승렬59 ▲유원규75 ▲유재성64 ▲윤서성66 ▲윤익수57 ▲윤호일65 ▲이경환79 ▲이기주59 ▲이대영62 ▲이민수55 ▲이복영66 ▲이상렬61 ▲이석용60 ▲이성보79 ▲이순복58 ▲이영석74

▲이외수67 ▲이용남63 ▲이원태57 ▲이인규81 ▲이장성71 ▲이전우60 ▲이 준88 ▲이진홍80 ▲이태영65 ▲이홍규29 ▲이희권67 ▲임정수77 ▲장준철71 ▲정동진55 ▲정민수68 ▲정용인64 ▲정지태63 ▲조대환80 ▲조영식58 ▲조익래60 ▲조한룡39 ▲주광일65 ▲차광웅67 ▲천기필69 ▲최거훈80 ▲최달근63 ▲최병륜60 ▲최병주62 ▲최영식76 ▲최정덕65 ▲최형준56 ▲하간식71 ▲하철용72 ▲한부환70 ▲허택원57 ▲황보영87 ▲황선태70 ▲이용권61 ▲이우상70 ▲이원호65 ▲이인상57 ▲이재덕66 ▲이 준74 ▲이중근68 ▲이채주57 ▲이해규64 ▲이홍균60 ▲임순목58 ▲장덕조88 ▲장희석81 ▲정명호80 ▲정영성73 ▲정용재64 ▲정진국74 ▲조병직50 ▲조영진70 ▲조원일68 ▲조중환69 ▲조현수82 ▲지종현71 ▲차한성77 ▲천인수63 ▲최낙현58 ▲최병덕76 ▲최병수60 ▲최성창79 ▲최영진84 ▲최정식81 ▲탁일호55 ▲하광호77 ▲한동우70 ▲허진호68 ▲홍성좌56 ▲황봉환77 ▲황희철81

◇師範大學

▲강선기79 ▲강수길68 ▲강하구66 ▲공귀섭59 ▲김경미89 ▲김경하41 ▲김규호60 ▲김기원56 ▲김동배62 ▲김동혁63 ▲김명해59 ▲김삼순40 ▲김성례61 ▲김순종57 ▲김영자63 ▲김옥련62 ▲김원태32 ▲김인숙60 ▲김인표38 ▲김재철77 ▲김정환44 ▲김종환57 ▲김충용65 ▲김형기76 ▲나고찬56 ▲남한식55 ▲노희관58 ▲문보환72 ▲박상일50 ▲박승덕53 ▲박영오70 ▲박인근63 ▲강종익78 ▲구자혁62 ▲김경자62 ▲김규영44 ▲김금삼36 ▲김남욱60 ▲김동필61 ▲김두희60 ▲김민정86 ▲김선식62 ▲김수환72 ▲김영숙55 ▲김영진58 ▲김용욱57 ▲김유선35 ▲김인숙73 ▲김재우88 ▲김정숙39 ▲김종영58 ▲김창순43 ▲김태언66 ▲김혜원59 ▲남기병56 ▲노재우40 ▲문계동57 ▲박명학65 ▲박소영70 ▲박영배72 ▲박윤서51 ▲박인식52

▲박정남61 ▲박정모78 ▲박창근58 ▲박태우57 ▲반진호80 ▲배은재70 ▲백완희72 ▲백월용63 ▲서형래76 ▲소병현52 ▲손영국74 ▲손옥호76 ▲송기창83 ▲송상봉58 ▲신각범58 ▲신금자45 ▲신동철63 ▲신봉희41 ▲신성택62 ▲신용수57 ▲신의범41 ▲신태복55 ▲신태우62 ▲신행범78 ▲심상필54 ▲안광화69 ▲안익수65 ▲안영숙56 ▲안영희61 ▲양태영44 ▲오병문52 ▲우종란73 ▲유남두61 ▲유정규43 ▲윤덕성44 ▲윤철식88 ▲윤형원60 ▲이계학62 ▲이광희70 ▲이귀술60 ▲이기원87 ▲이달덕74 ▲이동욱73 ▲이만형69 ▲이명봉74 ▲이민부78 ▲이민숙88 ▲이박자42 ▲이병준53 ▲이병호74 ▲이상온77 ▲이상재54 ▲이석주60 ▲이석주64 ▲이성범52 ▲이승원77 ▲이신구63 ▲이연섭63 ▲이연식60 ▲이옥경39 ▲이옥자63 ▲이완식61 ▲이용률56 ▲이윤우68 ▲이의숙60 ▲이재혁65 ▲이재희78 ▲이정덕59 ▲이종명58 ▲이종연60 ▲이중해46 ▲이진환58 ▲이창국64 ▲이희원79 ▲임갑택62 ▲임인수58 ▲임인순62 ▲임창선76 ▲임형진55 ▲장근화57 ▲장병지61 ▲장종택59 ▲전남석59 ▲전래수56 ▲전수남63 ▲전우창44 ▲전팔근62 ▲정국진40 ▲정만진55 ▲정부길64 ▲정의포77 ▲정재현60 ▲정지오73 ▲정형규57 ▲정호영71 ▲정흥대87 ▲재옥례35 ▲조기호58 ▲조봉자40 ▲조용란59 ▲조윤숙60 ▲조진현61 ▲조철원59 ▲조항덕78 ▲주정일46 ▲지봉식83 ▲진패현56 ▲최경식70 ▲최계숙56 ▲최돈형72 ▲최석진67 ▲최종우76 ▲최진룡56 ▲최창숙72 ▲최홍진53 ▲추암석72 ▲추월영25 ▲한 녀43 ▲한삼욱54 ▲한상현72 ▲한정교61 ▲허현남69 ▲홍기필88 ▲홍동은41 ▲홍익석87 ▲황광수61 ▲황승희70 ▲황재기60

◇商科大學

▲강신용62 ▲강 영71 ▲강영주66 ▲강영중70 ▲강창준50 ▲강태석55

▲경연소62 ▲권영식74 ▲권찬준67 ▲김경길67 ▲김대식74 ▲김범수65 ▲김석근65 ▲김영구71 ▲김영진71 ▲김용술62 ▲김육65 ▲김육한64 ▲김유일57 ▲김윤경57 ▲김재진60 ▲김정호54 ▲김종찬63 ▲김종욱70 ▲김종찬63 ▲김준성68 ▲김준식70 ▲김진호58 ▲김진화65 ▲김창수70 ▲김창진62 ▲김채수61 ▲김철배53 ▲김현주64 ▲김희석50 ▲남영우73 ▲맹정주71 ▲명영삼60 ▲문태철62 ▲민병훈60 ▲박경하68 ▲박노영65 ▲박문식66 ▲박봉규64 ▲박봉흙72 ▲박세신68 ▲박영도64 ▲박지건64 ▲배경한71 ▲배종렬65 ▲백기덕64 ▲백창기65 ▲서병민70 ▲서준호73 ▲설 유71 ▲성백규56 ▲손기창62 ▲송무우65 ▲송필호72 ▲신용구57 ▲안국신69 ▲안성봉75 ▲안재동67 ▲양영환58 ▲어선선57 ▲오기화63 ▲오세종65 ▲오종근71 ▲오태홍67 ▲유관필63 ▲유창희71 ▲유병인64 ▲유무수57 ▲윤병복60 ▲윤수병57 ▲윤흥구70 ▲이강호36 ▲이경모56 ▲이길호59 ▲이대영72 ▲이병서61 ▲이병세72 ▲이상경55 ▲이상락71 ▲이석영70 ▲이석우67 ▲이세근70 ▲이세장59 ▲이승우57 ▲이영선70 ▲이영호69 ▲이영진72 ▲이익치69 ▲이정보66 ▲이정상65 ▲이종달63 ▲이종렬49 ▲이종우65 ▲이종휘70 ▲이좌영62 ▲이주희74 ▲이중수49 ▲이찬호70 ▲이창욱51 ▲이충희75 ▲이홍식60 ▲이희원69 ▲이희도71 ▲임창무57

▲장기남68 ▲장철훈63 ▲전동진66 ▲전영일75 ▲정기영71 ▲정수창41 ▲정재식66 ▲정종순69 ▲조관호60 ▲조상호73 ▲주덕화49 ▲주 일57 ▲지창수59 ▲진 녀63 ▲진용무65 ▲최대현61 ▲최도성74 ▲최순원50 ▲최은호73 ▲최익재72 ▲최정완57 ▲최제현60 ▲최철현67 ▲한규렬64 ▲한상봉65 ▲한의현64 ▲한장식65 ▲한준수65 ▲허 길56 ▲허남조71 ▲허도행69 ▲허재경61 ▲현해관71 ▲홍성주64 ▲홍순대60 ▲홍 철69 ▲황규백69 ▲황문환68

◇獸醫科大學

▲강승원63 ▲구용회55 ▲김덕원54 ▲김선일70 ▲김이섭59 ▲김정근59 ▲김태희63 ▲김현대57 ▲남기용61 ▲박노국68 ▲박만택56 ▲박병식61 ▲박승도70 ▲박종명65 ▲박희춘70 ▲방효범59 ▲변영근66 ▲석세조54 ▲석호봉67 ▲소경택65 ▲송기준65 ▲신문균60 ▲오영유57 ▲윤대규55 ▲윤석순64 ▲이방환49 ▲이수창67 ▲이재진64 ▲이정웅58 ▲이창업63 ▲임국환73 ▲전세규54 ▲최성호61 ▲최용석78 ▲최희인56 ▲한홍물63 ▲홍종해76

◇藥學大學

▲강희경68 ▲곽정수59 ▲김광일49 ▲김석기53 ▲김성래67 ▲김양균55 ▲김옥경87 ▲김재기57 ▲김종철53 ▲김춘수72 ▲김태곤75 ▲김한주61 ▲김행이69 ▲김현욱61 ▲김효중79 ▲김휘배65 ▲나도선71 ▲나례연87 ▲문상호49 ▲박승무71 ▲박종호71 ▲방창학49 ▲백기남65 ▲서광수68 ▲신현학61 ▲안병욱76 ▲염문경89 ▲오병민55 ▲원상필58 ▲유원근68 ▲윤승로56 ▲윤영남52 ▲이광식70 ▲이길웅69 ▲이세복68 ▲이승길45 ▲이승한71 ▲이용선57 ▲이원희72 ▲이정식73 ▲이주형71 ▲이혜숙78 ▲전하창71 ▲정지석64 ▲정진기57 ▲정희경88

▲조기창68 ▲주상섭69 ▲진성근74 ▲채병호60 ▲천병년81 ▲최리나88 ▲최명자66 ▲최호강56 ▲편승범55 ▲한복영49 ▲한진호63 ▲홍순언66 ▲황성주80 ▲황영욱61

◇音樂大學

▲강정숙59 ▲고순자56 ▲김경숙67 ▲김정두55 ▲김정수65 ▲김행춘55 ▲김형규64 ▲박은희49 ▲방효선74 ▲백원정69 ▲서계숙60 ▲송영선75 ▲신대철73 ▲심선화76 ▲엄의경65 ▲우시현89 ▲이동남70 ▲이문경74 ▲이방숙65 ▲이석원71 ▲이선이88 ▲이성만51 ▲이영자60 ▲이정희52 ▲이학주50 ▲임현정76 ▲임희정66 ▲장형원79 ▲전신주71 ▲전혜욱79 ▲정승영71 ▲정재윤89 ▲조문자66 ▲조학현65 ▲한혜자65 ▲현병화52 ▲현대경67 ▲홍명숙78 ▲황현정67

◇醫科大學

▲강길전67 ▲강진구65 ▲강진영73 ▲계수덕49 ▲고병훈55 ▲고영석54 ▲고재준89 ▲권기익77 ▲김기락76 ▲김덕호41 ▲김동규78 ▲김명준63 ▲김상은83 ▲김성심57 ▲김영구79 ▲김용진75 ▲김재명63 ▲김창원61 ▲김철원69 ▲김충은59 ▲김충철67 ▲김필수82 ▲김현우60 ▲김혜성71 ▲김호성82 ▲나정호87 ▲남송현78 ▲노동영81 ▲동은실87 ▲문형조61 ▲민영일65 ▲민현기51 ▲박성원46 ▲박성일69 ▲박순일67 ▲박용삼82 ▲박용수66 ▲박웅재44 ▲박인애61 ▲박재덕41 ▲박정구75 ▲박중신89 ▲박찬무47 ▲박평순55 ▲박혁석55 ▲박해숙68 ▲박희백67 ▲백낙형58 ▲변창세78 ▲서정호89 ▲선우성88 ▲성수현47 ▲송제일79 ▲신기식85 ▲신준우84 ▲심상운37 ▲심태섭62 ▲양혜숙72 ▲오세영70 ▲오준희75 ▲옹상길64 ▲유영삼86 ▲유윤정77 ▲유장희68 ▲유종근77 ▲유 준41 ▲윤경선69 ▲이건재80 ▲이규범56 ▲이덕수61 ▲이동규83 ▲이명복39 ▲이명혜79 ▲이봉재79 ▲이상운77 ▲이상준66 ▲이승훈80 ▲이 영68 ▲이영우60 ▲이영자63 ▲이원석87 ▲이인섭77

▲이종복85 ▲이종명79 ▲이창훈84 ▲이춘섭83 ▲이해영75 ▲이호성68 ▲이흥자80 ▲이화영56 ▲임난영71 ▲임영선55 ▲임용성85 ▲임재준56 ▲임홍철75 ▲장춘자66 ▲전광준89 ▲전지일55 ▲정명옥67 ▲정배려84 ▲정숙자64 ▲정승용89 ▲조민구72 ▲조성수76 ▲조태준87 ▲주경란75 ▲주규완50 ▲주영재39 ▲주원식82 ▲주일중84 ▲차철환53 ▲최병남71 ▲최승현77 ▲최용언56 ▲최윤식69 ▲최종성75 ▲한동환85 ▲한민식43 ▲한정수77 ▲한혜숙71 ▲허 선82 ▲홍석근87 ▲홍순관84 ▲홍준중74 ▲황정득75 ▲황태영78

◇齒科大學

▲강봉기75 ▲강순철61 ▲고백진87 ▲곽난희88 ▲구경본72 ▲구본석84 ▲권순배86 ▲권혁춘63 ▲김경남83 ▲김공배62 ▲김관식75 ▲김광남65 ▲김기국70 ▲김명진77 ▲김법환65 ▲김순연89 ▲김연만59 ▲김영렬83 ▲김옥희83 ▲김용남74 ▲김우철75 ▲김정일76 ▲김주관72 ▲김진태58 ▲김창희68 ▲김채종74 ▲김 현73 ▲김현태82 ▲김형배84 ▲김형조85 ▲김희정89 ▲남태우84 ▲노지섭49 ▲문명용64 ▲민병무80 ▲민정미65 ▲박경옥73 ▲박옥련57 ▲박용규59 ▲박용한84 ▲박주미87 ▲박주태76 ▲박춘영60 ▲배진척66 ▲배효택81 ▲백기석70 ▲부정선81 ▲설영택67 ▲성광석69 ▲손우성81 ▲신광희60 ▲신동준80 ▲신문혁69 ▲신순일67 ▲신승철78 ▲심유진69 ▲안경민83 ▲오명희80 ▲오성근55 ▲우상두83 ▲우진오78 ▲유기환70 ▲유종우86 ▲유주하85 ▲윤철민88 ▲은세원65 ▲이대관80 ▲이동주62 ▲이민구75 ▲이병운57 ▲이봉재61 ▲이성근77 ▲이성종78 ▲이운순61 ▲이원복58 ▲이원철69 ▲이정웅75 ▲이정희64 ▲이종문67 ▲이종복49 ▲이종철82 ▲이해준63 ▲임병채86 ▲장명우89 ▲장병천74 ▲정규배81 ▲정성창67 ▲정영완57 ▲정용식70 ▲정용호71 ▲정희태84 ▲제갈선영71 ▲조영선57 ▲조일제63 ▲조한국58 ▲주미희69

▲차만희61 ▲최덕호64 ▲최정식60 ▲최종석82 ▲탁미선82 ▲한광수69 ▲한광수78 ▲한세현71 ▲한충일64 ▲현기용83 ▲홍금표58 ▲황인서67

◇大學院

▲권숙표70 ▲김상균70 ▲김재훈72 ▲김효규59 ▲나병만77 ▲박복만71 ▲박용봉76 ▲박재영72 ▲박종렬71 ▲서상혁82 ▲유한성66 ▲이정의77 ▲이 준77 ▲임경순61 ▲전민제50 ▲정기화71 ▲정용달85 ▲정재훈89 ▲조재연82 ▲조찬성75 ▲조한욱61 ▲지병천64 ▲차동민61 ▲홍석일89

◇經營大學院

▲김영무68 ▲신영구68 ▲이병재69 ▲이영희67 ▲이태형72 ▲전우영69 ▲정남진76 ▲차상수64 ▲최갑석72 ▲최창묵66

◇教育大學院

▲변정숙66 ▲변정환65 ▲이원국70

◇保健大學院

▲강원원77 ▲김동호70 ▲강영웅77 ▲김정만77 ▲김종석80 ▲박명운76 ▲박연수89 ▲이민희76 ▲이지철73 ▲정현주81 ▲허재영62 ▲황석천82

◇司法大學院

▲가재환70 ▲김적승69 ▲김태정67 ▲송동섭66 ▲전도영70 ▲조무제67

◇新聞大學院

▲김기덕72 ▲류선우69 ▲심재주68

◇行政大學院

▲권오택77 ▲김경엽65 ▲김세호85 ▲노일숙85 ▲박재석73 ▲장준규67

◇環境大學院

▲김경영61 ▲김창익87 ▲민봉기83 ▲이강건78 ▲이명수74 ▲이준호89 ▲이필수77 ▲전의찬87 ▲채승기63 ▲한태호89 ▲허일도83 ▲황보영춘66

지 부

◇오스트리아

▲이상경 ▲이승곤 ▲이경건 ▲전풍일 ▲이호진 ▲송성호 ▲원기희 ▲서두석 ▲양평호 ▲황해근 ▲정종빈 ▲조건우